

# 학여와 함께 가는 국어학

임 홍 빈\*

## 대담 1: 삶

**대담자:** 오늘은 선생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여 선생님의 삶을 조망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선생님의 생애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시기와 주제를 나누어 대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유년기를 포함하여 대학 입학 전의 시절부터 학부와 대학원 시절까지에 대하여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와 연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취미와 정년 후의 계획, 기타 사항 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sup>1)</sup> 먼저 선생님께서 특히 기억에 남는 제자를 꼽으신다면요?

**임홍빈:** 내 방에 있었던 김홍선이 학위를 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죠. 그리고 류남혁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 한의원 원장이 되었는데, 자기가 만든 경옥고라고 하면서 그것을 한 통 보내오면서 소식을 전해 왔는데, 참 인상에 남는 일입니다. 국민대학에 있을 때는 늦게 입학한 윤석산이라는 시인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편입 당시에 그분은 이미 시인이었습니다. 나보다 1살 아래였는데,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교수는 한 살

---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 대담은 2009년 5월 16일 서울대학교 근처의 식당에서 가진 스승의 날 기념 모임에서 이루어졌다. 참석자는 김민선, 김선영, 남미혜, 박재연, 서경숙, 신서인, 이선웅, 이은경, 이은섭, 이홍식, 최정진, 최형강이었다. 여러 사람이 번갈아 임홍빈 선생님과 질문을 했으나 이를 모두 대담자로 표기하였다.

위고 학생은 한 살 아래였던 셈이지요. 제가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다음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업을 했는데 윤석산 시인이 그런 모습이 존경스럽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제주도에 가서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서 그동안의 회포를 풀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주대학 교수이자 시인으로서 인터넷 문학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답자:** 선생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흥빈:** 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얘기가 뭐죠?

**대답자:** 어디 사셨나요?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요?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임흥빈:** 태어나기는 제가 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거 모르는 분 있어요? 삼팔선이 개성 북쪽에 송악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송악산에 삼팔선이 지나요. 그리고 거기서 육이오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개성에서 지냈습니다. 그때의 동네 친구 이름도 기억을 하는데요. 그 동네에서 단짝으로 놀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친구 이름은 장호영입니다. 그래서 혹시 북한에서 대표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 북한 대표 명단에 그 장호영이란 이름이 나오나 찾아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안 띄었습니다.

**대답자:** 남한에 와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임흥빈:** 그런데 유월 이십오일 날 아침에 북한군이 남한으로 넘어왔어요. 개성이 점령된 거지요. 우리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를 위해서 교회 갔다가 오면서 경찰서가 피투성이가 된 것을 보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괴뢰군들은, 그 때는 괴뢰군이라 그랬는데, 괴뢰군들은 개성을 조용히 지나갔어요. 경찰과 순경들 전부 칼로 죽이고 소리 안 내면서 개성을 조용히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갔다가 오는 사람이 보고 경찰서에서 무슨 큰일이 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르는 상태였지요. 그리고 유월 이십육일서부터 인민군 치하가 됐는데 인민군들이 장호영네 집을 점거를 했어요. 북한 쪽에서 그 집을 점거해 가지고 거기서 매일 저녁에 무슨 반사회 같은 걸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복이 돼서 남쪽이 점령을 해서 북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장호영네는 그 북측을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개성을



버리고, 자기 집을 버리고 인민군을 따라서 북쪽으로 갔는데 그때 가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 통에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사후퇴 때 다른 사람보다 아주 늦게 우리는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개성에서는 김장을 한 일주일쯤 해요. 김장을 다 해 놓고 독에다가 담아 놔는데 ‘이걸 버리고 어떻게 가느냐.’ 그래서 ‘잠깐 갔다 오자’고 해서 잠깐 피난했다가 온다고 한 것이 지금, 오십 몇 년이야, 오십구 년이 됐네요, 히히히.

**대답자:** 짐도 별로 안 챙겨왔고 그냥 오신 거예요?

**임흥빈:** 짐도 그때 가지고 온 것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게 하나 동생 집에 있는데 시계예요, 시계.

**대답자:** 벽시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흥빈:** 벽시계를 들고 왔는데, 그때도 시계는 아주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벽시계를 들고서 피난 생활을 다 하고 돌아다닌 것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지금 생각하면은 그까짓 시계 뭐 어찌구저찌구 하는데 실제로는 시계가 굉장히 귀중한 것이었거든요. 한 집안에 벽시계 하나는 있었어야 되고, 또 손목시계 하나는 있었어야 되는데, 손목시계 가진 게 내가 대학 졸업 하

고 처음 가졌어요. 대학 졸업 하고 군대 가서 첫 봉급 타서 마련한 것이 손목시계예요. 그것도 무슨 새 것도 아니고 중고 손목시계를 사 가지고. 허허. 그래서 그 피난을 그 저쪽에 통일로 아니 자유로군요. 자유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자유로 근처에 있는 어떤 지점에서 한강을 건너 김포로 건너 간 거예요. 밤중에. 왜냐하면 한강은 이미 건너가지 못하게 됐었고 강을 넘어서 피난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돈 주고 밤에 목숨 걸고 피난민을 나르던 배가 있었거든요.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하면서 총을 쏘 대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마침내 닿은 곳이 김포였고 거기서 또 걸어가지고 그 남양이라는 데까지 갔어요. 남양. 남양이 어딘지 모르죠? 수원 아래쪽에 남양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남양 어느 집에서 우리를 거처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한동안 잘 지냈지요. 그런데 나도 피난을 갈 때는 짐 한 짐을 지고 갔습니다. 그때 일고여덟 살 초였었다고 생각하는데 피난을 갈 때는 짐을 한 짐 지고 내려왔는데 피난 도중에 장티푸스에 걸린 거예요. 약을 하나도 먹은 게 없었고 피골이 상접했지요. 잘 먹지도 못하고 하는 것을 집에 어머니가 얻어서 먹이고 그래 가지고 겨우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교동(校洞)으로 갔습니다. 교동으로 갈 때에는 업혀서 간 거예요. 허허허. 피난을 나올 때에는 한 짐 지고 나왔었는데……. 교동에 우리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데로 가서 거기서 한 일 년쯤 지냈어요.

육이오 직전, 그러니까 학교를 일곱 살에 들어갔어요, 제가. 생일이 삼월이었고 그때에는 사월 개학이었어요. 일본 제도가 사월 개학이었는데 그것을 그냥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월생은 일곱 살에 학교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본래 한 살이 적게 다닌 거예요, 제가. 그리고 사월에 입학했는데 마침 제가 홍역에 걸렸어요. 입학 후에 홍역에 걸려 가지고 집에서 뭐 홍역살이, 홍역 병치레를 하다가 겨우겨우 일어나서 학교에 간 것이 아마 유월 중순쯤 되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쯤 다녔는가 했는데 육이오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학교에 갔었는데 그 이튿날은 막 노래를 가르치더군요. 그런 사정을 집에 와서 말했더니, 다니지 말라 그래서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일사후퇴에 교동에 갔는데, 학교도 못 다녔지요. 교회는

좀 다닌 것 같습니다, 어머니 따라서. 그러던 중에 교동에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도 자세히 봤지요.

그리고 서울로 와서 마포에 있는 용강초등학교 2학년으로 들어갔어요. 생각하면 1학년을 하나도 공부한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때 나이는 다른 2학년생보다는 조금 많은 편이었습니다. 3월 학기 입학생이었기 때문에 4월 학기 입학생보다 한 살이 많은 거였어요. 중학교에 입학할 때에도 한 살이 많은 거였지요. 그때는 나이가 많으면 입학시험에서 감점 당했어요. 나이 많으면 감점 대상이었지요.

그런데 질문지에 ‘국어를 좋아했느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사실은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서울에 와서 초등학교 2학년 중간에 편입 비슷한 것을 하였기 때문에 책을 못 받은 거예요. 책을 받았어야지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하지요. 그런데 책을 못 받아서 교과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남의 책을 빌려서 내용을 철필로 베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까스로 국어 산수 이런 걸 다 공부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2학년 때에 담임선생님이 마송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받아쓰기를 그렇게 많이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받아쓰기 하면서 못 썼던 말이 ‘프로펠러’라는 엄청난 말이었어요. 어려운 받아쓰기였다는 생각이 아직도 나요. ‘프로펠러’를 어떻게 쓰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교육 받은 적이 있어야지요.

**대답자:** 안 가르치고 시험을 봐요, 선생님?

**임흥빈:** 잘 생각이 안 나지만, 가르치고 보았다고 해도 그게 다 낯설지요. 제대로 다 공부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받아쓰기가 난 그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한국어 받아쓰기가 아주 악몽이었습니다. ‘프로펠러’는 아주 악몽에 속하는……. 허허허.

**대답자:** 공부를 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임흥빈:** 초등학교 3학년 때에 우등상을 탔으니까 그게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공부에 재미를 붙였다고 할까요. 그때는 반장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 하던 시대예요. 3학년 때 반장을 하던 아주 똑

똘한 학생이 있었는데 4학년 때는 제가 반장을 했지요. 반장을 5학년 6학년 때까지 다 하지는 못 했어요. 그때는 반장이 ‘반장’ 배지를 달고 다니던 사람도 있었어요, 명찰 비슷하게. 하여튼 반장 배지를 하고 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달아 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자기 돈 들여서 만들어서 차야 했으니까요.

초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좋아했느냐는 질문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는 우리 시대는 다 잘하는 거였으니까 특별히 그것만 잘한다고 하는 게 없었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수학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이들 공부를 어떻게 시키느냐 이런 것도 문제인데 수학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거 같아요. 영어하고 수학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수학 비중이 높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수학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무슨 고등학교 2학년 선배들이 중 3 교실에서 자습 지도하는데 그런데 내가 자습에 고등학교 수학을 풀고 있으면 ‘야, 너 그거 하니?’ 하곤 했죠.

대답자: 용강초등학교 다니셨죠?

임흥빈: 용강초등학교.

대답자: 중학교는 어디를 나오셨나요?

임흥빈: 중학교는 숭문중학교, 숭문고등학교. 용강 뒤에 있는 학교가 숭문이에요.

대답자: 동네는 어디 사셨어요?

임흥빈: 용강동에서 오래 살았죠.

대답자: 선생님이 인문대 입학하실 때 수학 문제를 다 푸셨다고 하던데요?

임흥빈: 수학에 1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의 한 문제는 전에 풀던 문제여서 답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문제집에서 본 게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도 시간이 남아서 그것도 식을 다 쓰고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사실은 물리도 좋아했어요. 물리도 아주 좋아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에 서울대 물리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머리가 비상하고 눈이 아주 초롱초롱한 물리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 분이 가르치는 것도 재미있었고

요.

**대답자:** 그 당시에든 문과 이과가 있었나요?

**임흥빈:** 고등학교 때 문과 이과보다는 우열반으로 나뉘 가지고 있었는데 열반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이 지금 사장이 돼 가지고……. 인간성은 열반 학생들이 훨씬 더 낫지요. 사장도 그쪽에서 많이 나왔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퇴학 맞고 이런 사람이 지금은 건설회사 사장이고 동료들 위해서는 뒷바라지도 잘 해 주고 그래요.

**대답자:** 물리하고 수학 좋아하셨는데 국문과를 가셨네요.

**임흥빈:** 질문이 아주 날카롭네요. 대강 넘어갈 줄 알았는데요. 고등학교 때에 우리 학교로 오신 국어 선생님이 최신희 선생님하고 이종철 선생님이셨는데 이종철 선생님이 국어학 전공이셨어요. 그런데 이종철 선생님이 ‘국문과로 가라. 거기서 뭐가 제일 지금 날리고 있느냐 하면 이기문 선생님이 비교언어학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날리고 있다. 그러니 너도 국문과를 가서 비교언어학을 해라.’ 이종철 선생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와서 1학년 때는 비교언어학 공부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언어학 기초 책을 많이 읽었고 또 비교언어학을 한다고 해서 들어왔으니까 비교언어학 책들도 꽤 읽고 그랬지요.

**대답자:** 그런데 이종철 선생님이 가라고 그래도 생각이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

**임흥빈:** 고등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어디에 가기를 원했느냐 하면, ‘너는 법과대학에 가라.’ 그랬는데 법대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물리하고 수학을 잘했기 때문에 공과대학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과대학에는 수재급, 천재급 학생들이 맨날 떨어지는 데입니다. 공과대학이 그랬어요. 우리 다닐 때 제일 유망한 학과가 뭐냐 하면 천재급 학생들이 가는 데가 화공과였습니다. 화공과를 졸업하고 어디에 취직하느냐. 비료공장에 취직하는 거였어요. 고3 때는 그런 생각들이 없었고, 여하튼 경기, 서울 뭐 이런 데서 거의 천재급의 학생들이 화공과에 지원했어요. 우리 송문학교 고3에서도 우리 동기가 화공과에 지원해서 첫 해에 떨어졌지요. 재수해서 그 다음 해에 들어갔어요. 나는 재수할 수 없다. 그래서 제일 잘 들어갈 수 있는 데 국문과,

약한 데 찾은 건 아니구요. 국어도 잘 했고.

대답자: 저희들은 시를 쓰셨다고 들었는데요.

임흥빈: 지난번에 찾아봤는데 ‘임흥빈’ 하고 검색하면 내가 쓴 시가 하나 나와요. 서울대에서. 그게 뭘까요? 시는 다시 못 봤어요. 시가 신문의 형태로 돼 있는지, 아주 어렴풋이 어렴풋한 신문 형태의 것이 보이는데…….

대답자: 문리대 문학잡지에 선생님 시가 실려 있었다고 하던데요.

임흥빈: 거기 동인 활동도 했지요. 그때에 동인 중의 하나가 현기영이예요. 현기영이란 사람 모르죠? 소설가 현기영.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현기영 소설의 예문이 수도 없이 들어가 있어요. 현기영은 훨씬 더 나이가 많았고, 군대 갔다 와서 학교를 다녔고, 소설을 쓴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제일 처음 써서 대학신문에 발표한 시를 엄청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그 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대답자: 그게 언제데요?

임흥빈: 대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땀가. 시가 얼마나 좋은지. 또 ‘원정의 노래’라는 시를 쓴 적도 있어요. 첫 시작은 ‘시 쓰듯 시를 쓰듯 하루를 살고 싶다’ 그랬었거든요. 그것도 얼마나 좋아. ‘시 쓰듯 시를 쓰듯 하루를 살고 싶다’ 그게 그렇게 시작이 돼요. 대학 다닐 때 내 시를 읽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좋아해요.

대답자: 어떤 분들인가요?

임흥빈: 고등학교 동기지요. 고등학교 동긴데, 지금 65살인데 ‘내가 지금 네 시를 여기다 붙여 놓고 있다.’ 그럴 정도로…….

대답자: 동인 활동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임흥빈: 3학년, 4학년 그래요.

대답자: 시는 그 전부터 쓰셨고요.

임흥빈: 시는 그 전에도 쓴 게 있어요. 아, 수필을 쓴 적은 있죠. 중 3 때 쓴 수필이 있는데, 어딘가 있을지 몰라요. 중 3 때 쓴 수필이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동기가 지금 읽어 보니까 무슨 의미인 줄 알겠대. 그때는 아주 마음먹고 철학적으로 쓰려고 했지요. 글이라는 것을 본때로 어렵게 좀 써 보자는 마음이었어요.



**대답자:** 허락해 주시면 이번에 책에다가 이렇게 자료로, 사진을 실으면 좋겠는데 실어도 되겠습니까?

**임흥빈:** 허허허. 대학신문에 시를 두 개 실었는데. 검색창에 하나만 나오고 다른 하나는 왜 안 나오나 그랬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또 임흥빈 하면 나오는 게 있잖아요, 시 하나가 나온 것이 있는데, ‘내경’이라는 시의 제목이 검색되었습니다. 그때 그걸 보고 ‘아 내가 이런 시를 썼구나…….’

**대답자:** 그건 잊어버리셨어요?

**임흥빈:** 내용만 어렴풋이 생각하는데 제목은 잊었던 것입니다.

**대답자:** 비교언어학을 하려고 국문과에 오셨는데 시도 같이 쓰셨고 그러면 문학 쪽도 좀 생각을 하셨었나요?

**임흥빈:** 아니지요. 무슨 계기가 있었죠, 사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언어학 공부를 했으니까 재미가 그렇게 있을 리 없지요. 그리고 차츰차츰 그 무슨 벽에 부딪쳤느냐 하면, 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책이. 그리고 심악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 자료 찾았어.’ 뭐 만나면 ‘자료 찾았어.’ 이게 인사였어요. 15세기 한국어 자료를 가지고 그걸 뒤져서 자료를 찾는 게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겠어요? 책이 어딴어요? 그건 전부 다 교수님 방에 다 있었는데, 그리고 심악 선생님 방에는 『원각경언해』가 그때 이만큼 놓여 있었는데, 그게 한국에 하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것을 내가 뒤져서 언제 그것을 뒤져서 의미 있는 자료를 찾아요?

그때 1970년대에는 습식 복사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중 그거 본 사람 없을 거예요, 엄청 비쌌어요. 한 장 복사하는 데 백 원씩 했으니까요. 복사 하나 하려면 검은 알맹이 같은 것을 이런 통에다 넣고 이렇게 이렇게 샷대질을 해야 탄소가루가 묻었어요. 가루가 거기에 묻어 가지고 글자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책을 구하기 어려운 것은 문제였지요. 그러니까 그때에 심악 선생님이 우리한테 와서 하신다는 말씀이 ‘책 빌려주는 놈 바보, 또 책 빌려가서 돌려주는 놈 바보, 또 책 빌려가서 왜 안 돌려주느냐고 하는 놈 바보, 책 안 돌려줘서 미안하다고 하는 놈 바보.’ 뭐 이런 네 가지 바보가 있었다고 그러셨거든요.

문리대에 1등으로 들어온 놈들이 연애를 하다가 망한 학생도 있었어요.

완전히 열등생으로 졸업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책을 살 시기에 책을 못 샀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어문학과를 다닌다, 외국어 중심의 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학기 초에 범한서적 뭐 이런 외국 서점에 책이 한 스무 권쯤 들어왔었지요. 그것을 교과서로 하겠다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그 책을 사야 되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나가 버리고 구할 수가 없었어요. 연애를 하면서 교정을 조금 돌아다니다 보면 그 시기를 놓쳐 버리곤 했지요. 책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베끼든지 훔치든지 타자를 치든지 했어야 해요. 그 다음엔 공부 안 하든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베끼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자기 머리가 좋아서 한번 빌려서 읽고 머릿속에 다 넣을 수도 없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고요. 정신을 차려서 야 이것은 한국에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하루 저녁에 읽고 내일 갖다 줘야 되는데 머릿속에 다 넣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룻밤에 읽고 갖다 줬다니까요. 그렇게 읽은 책이 『액슬스 캐슬(Axel's Castle)』이란 책이에요. 내일 돌려달라는 거예요. 문학 책 중에서 『액슬스 캐슬』은 전설적인 책이었지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한 번에 해치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footnote해 가면서, 글을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으면서 큰소리치기는 좋아도 꼼꼼하게 주석 달면서 글을 쓰기는 어렵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때 물리학을 하던 제1급의 학생들이 전공서가 열 권밖에 없었다니까요. 지금 대학원 물리학과의 일급 학생은 적어도 전공서를 이백 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학생보다 그때 학생이 더 나았다는 겁니다. 왜 나왔냐면 그때 학생은 책이 없으니까, 문제가 주어지면 풀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냥. 책을 읽고 문제가 주어지면 그냥 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수한 학생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이걸 어디서 읽었는데, 이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데, 이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 풀이에 물론 도움이 되지만, 문제 풀이 능력에서는 예전 학생들이 더 우월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대답자:** 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책이 없어서입니까?

**임흥빈:** 책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했었지요. 서울대학교에서 당시에 나온

논문들은 다 제일급이었어요. 책이 거기밖에 없었으니까요. 자료를 찾아도 거기서 찾아야 했지요. 논문을 써도 거기서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다른 데는 책이 없었으니까요. 나중에 국어학을 하게 됐을 때에 왜 문법을 했느냐 하면 그건 ‘책이 없어도 되니까’였어요. 현대국어에서 춤스키하고 나하고 잘 맞아떨어졌던 것이 뭐냐 하면 그건 책이 없어도 되니까, 문헌이 없어도 되니까 하는 거지요. 전공 서적은 아직도 계속해서 문제지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외국 잡지들이 주변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천국 상태입니다. 논문 하나 쓰려고 하면, 뭐 ‘wh-의문이다’라고 할 때, 주요 논문을 봐야 하지요. 그런데 그게 가까이에 없었던 것입니다. 동경대학 도서관에 가서 들여다보니까 그때 내가 구하려고 했던 책들과 잡지들이 줄줄이 쪽 차례대로 있더라구요. *Language*는 기초고, *Linguistic Inquiry* 뭐 그런 것들이 골고루 다 갖춰져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긴 그런 게 없었지요. 사실 악전고투하던 때였지요.

**대답자:** 문학은 원래 전공하려고 하셨던 건 아니죠?

**임흥빈:** 문학을 전공하려고 했던 적도 있어요. 현대문학 전공으로는 생각이 그때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대학원에 국어학 전공으로 입학하고 군대를 가서 문학 공부를 무지하게 했지요. 문학 공부를 엄청 한 거예요. 그리고 문학 공부 할 때 무슨 책을 읽었느냐, 감동 깊게 읽은 책이 그때 무엇이었냐 하면요, 이 책은 꼭 한 번 읽어 봐야 되겠다 했던 것이 까뮈의 『반항인』이었어요. 그걸 한 번 찾아 읽어 봐요, 그것을 독파해 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지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것을 대학교 다니면서 첫 장을 폈다가 덮고, 또 4학년 때도 첫 장 폈다가 그만 두곤 했지요. 왜냐하면 내 능력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서 그걸 전부 다 빨간 줄을 치면서 읽었으니까요. 까뮈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까뮈를 좋아해서 한동안은 일생 동안 까뮈를 읽고 그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사는 것도 참 좋겠구나 하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뒤에 사르트르 책을 손에 잡게 됐어요. 그것도 이전에는 책을 통독해 낸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만약에 진해에서 내가 살지 않았으면 그 책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줄을 치면서 읽지는 못했을 거예요. 국어가 하루 수업이

있었는데 나머지 6일이 다 자유시간이었거든요. 강의는 국어 하나만 했어요. 나머지가 전부 다 자유였어요. 그때 진해 앞에는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소나무산이 있고, 그때에 그 문학 공부를 한번 마음먹고 해 보자 그랬고, 대학교 다닐 때에는 아주 건방진 생각이었는데 한국어로 된 책은 다 읽지는 목표를 세운 적도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진행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세계문학전집 같은 게 아주 비쌌습니다. 을유문화사에서 나온 세계문학전집이 330원 했어요. 그게 그렇게 비쌀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 한 달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일주일 내내 하루 두 시간씩 해서 얼마 받았게요? 2,000원 받았어요. 그런데 을유문화사의 그 책이 330원이었어요. 2,000원씩 매달 받으면서 왜 330원이 비싼 거냐구요? 아르바이트를 한 달 내내 가서 한 적이 없어요. 잘못하면 다 쫓겨나곤 했지요. 왜냐하면 친구하고 저녁에 만나서 얘기하다가 ‘한잔 하자.’가 되죠?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하냐구요? ‘내 알 거 뭐냐.’지요. 요거 몇 번만 하면 2,000원은 어느새 사라져 버려요. 그때 뭐 핸드폰이 있었나요, 전화기가 있었나요. 그 집에서는 그냥 기다리다가 당하는 거였지요. 아르바이트를 빠지려면 어딘가로 가서 전화를 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웠어요. 그때 등록금이 한 8,000원 했는데, 아르바이트 6개월이면 12,000원 되나? 그런데 아르바이트 해서 등록금 내본 적이 없어요. 등록금 할 정도로 제대로 봉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대답자:** 등록금은 어떻게?

**임흥빈:** 등록금은 또 장학금을 받아서 해결했지요. 장학금을 받아서 해결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했던 거지요. 그거 아니었으면 목숨 걸고 아르바이트를 했겠지요. 그런데 그때도 아르바이트를 잘 하던 놈이 있었어요. 대여섯 명씩 모아 놓고 10,000원씩 벌던 동기도 있었어요. 인문대학 다니던 사람들은 돈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이상하게도. 참 희한한 일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왜 도대체 돈 얘기를 안 했을까요?

**대답자:** 그래서 다시 국어학으로 돌아오시게 된 계기가 사르트르였다는 말씀이시죠? 아직 계기를 말씀 안 하셔서.

**임흥빈:** 아니 사르트르를 읽으면서 이제는 더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대답자: 그건 어떤 의미예요, 선생님?

임흥빈: 사르트르를 능가할 만한 책은 더 이상 안 나올 것이라는 의미예요.

대답자: 끝을 보셨기 때문에…….

임흥빈: 이것은 여기서 끝이다. 왜 끝나냐?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요. 사르트르로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요.

대답자: 그 말씀은 문학이 더 나아갈 곳이 없다 이렇게 보신 건가요?

임흥빈: 사상적으로는 그렇죠. 사상적으로는 아무래도 존재론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경험을 한다, 우주에 간다, 달에 간다 해서 달에 뭐가 있느냐는 더 밝혀지겠지만, 그것 말고 사람의 인식에 관한 것은 더 밝혀질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리학적으로도 더 밝혀질 게 있겠지만, 유전자가 뭐 어떻게 되었다든지 뭐 이런 것은 더 밝혀질 것이 있겠지만, 인간의 인식, 세계를 보는 방법, 세계를 설명하는 방법 이런 것은 더 나아갈 것이 아마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대할 때가 됐잖아요.

제대하고 대학으로 왔습니다. 문리대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취직할 때가 없나 기웃기웃하고 그랬지요. 왜냐하면 진혜에서 있으면서 계속 들었던 소리가 임 교수라는 소리였거든요. 임 중위, 임 교수 그랬는데 그때는 박사학위 안 가지고도 취직이 많이 됐거든요. 석사학위 안 가져도 취직될 수 있겠지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내 주변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는 군대 갔다 온 거지 니가 뭐 공부하고 온 거냐?” 하고 말이에요. 대학원 석사를 안 마치면 도저히 뭐 내세울 수도 없는 거지요. 지금은 박사학위 안 가지고 취직하려는 놈 있으면 아마 비웃음만 사겠죠?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석사는 별로 공부도 안 했던 건데 내가 3년이나 교관 하다 왔는데, 취직이 되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저를 거들떠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원 복학을 해서 다시 학점도 따고 석사 논문도 쓰고 그랬지요.

그때는 이미 문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학문으로서 문학을 하는 거나, 학문으로서 국어학을 하는 거나 다 같은 거다 그런 생각

을 했는데 요즘 보니깐 그쪽 사람들이 훨씬 더 신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문적으로는 문학이 학문적인 궤도에 들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대답자:** 대학원 돌아오셨을 때 어떤 분들이 같이 계셨었나요?

**임흥빈:** 대학원을 같이 다녔던 사람이 박양규 선생이 있었고, 이병근 선생님이 교양과정 부조교를 하고 있었어요. 송민 선생님도 그 주변에 있었어요. 내가 군대에서 돌아오니깐 이상익 선생은 박사 과정을 거의 다 마치고 있었어요. 그때에 처음 학위를 받아 가지고 한국에 온 분이 이정민 선생인데 이병근 선생이 몇 사람 그룹을 만들어서 이정민 선생한테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를 강독받고 그랬지요.

**대답자:** 학위 논문 주제는 그때 강독의 영향을 받았나요?

**임흥빈:** 학위 논문을 생각하던 시기에는 촘스키의 바인딩 이론이 한창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문들이 쓰여졌는데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한국어의 통사 구조 이것이 정해져 있지 않았잖아요. 평판 구조를 상정한 사람도 있고 또 계층적인 층위 구조로 설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위에 있고 다른 하나는 밑에 있고 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결국 원리가 잘 찾아진다면 한국어 구조를 찾아내는 데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도 했고요. ‘자기’라는 것이 결국 자기에 대한 의식이기 때문에 그게 사르트르하고 관련도 있어요. ‘자기’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봐야겠다, 한국어 문법 구조를 찾아 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기’의 문제를 중심으로 결국 이론을 다루어 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대답자:** 석사 논문의 ‘주제’는 미리 생각해 두신 것입니까?

**임흥빈:** 그 당시에 이중주어 현상에 대한 논의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엔 모두 석연치 않았어요. 주제라고 하는 게 틀림이 없는데 쓸데 없는 소리하니까, 제대하기 전에 해군사관학교 도서관에 있었던 책이 D. A. Reibel과 S. A. Schane이 편한 *Modern Studies in English*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속에 그루버가 쓴 ‘아동어에서의 주제화’란 논문이 있었어요. 그 아이디어가 괜찮았어요. 그루버의 논의가 괜찮았는데 왜 괜찮다고 생각했냐 하면 한국어의 구조하고 어린 아이들이 말하는 구조하고 유사한 면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 그루버의 논의를 한국어의 이중 주어, 이중 목적어 문장에 도입해 본 것입니다.

**대답자:** 해군사관학교 시절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던 거네요.

**임흥빈:**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다’하고 ‘하다’의 관계였어요. 『낙산 어문』에 처음 쓴 논문이 저에게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제대로 하는 학자가 별로 없다고 느꼈고, 생성문법의 오류도 눈에 띄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이다’를 지금도 잘 못 다루고 있잖아요. 그때 아주 이상하게 생각됐던 것은 ‘이다’가 ‘재촉인다, 독촉인다’와 같이 ‘-다’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심술인다’도 됐었는데 이기문 선생님도 희한한 일이라고 평가를 해 주셨어요.

**대답자:** 그게 첫 논문이시죠?

**임흥빈:** 어학 논문으로는 처음 쓴 거죠. 거기에 무슨 메커니즘을 도입한 것도 있는데 비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것보다 아이디어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답자:** 그러시면 그 전에 문학 논문을 쓰셨어요?

**임흥빈:** 문학 논문은 비교적 최근에 ‘메밀꽃 필 무렵’ 아시죠? 시간이 꽤 된 것 같은데, 5~6년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왜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냐 하면은 일본의 노마 선생이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예요. 왜냐하면 텍스트가 가만 있질 않는다는 거예요. ‘모밀꽃 필 무렵’이 있는데 계속 변화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보기에 서울대학교 국어책에 있는 ‘모밀꽃 필 무렵’하고 연세대 국어책에 있는 ‘모밀꽃 필 무렵’이 다른 거예요. 일본사람이 보니까 고대 국어책에 있는 것이 또 다른 거예요. 일본사람으로서는 도대체 한국은 뭐하는 나라냐 이거죠. 그래서 한국 문학작품은 계속 변화해간다는 거예요, 텍스트가. 아 그래서 진짜 ‘메밀꽃 필 무렵’이 어떻게 돼 있느냐를 봤더니 엉망인 겁니다, 말도 못 해요.

「메밀꽃 필 무렵」이 『조광』에 실렸는데 조광에서 누군가 처음 원고지에 손글로 옮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사기가 없었을 테니까. 누군가 처음 그걸 옮겼는데 그 뒤에 아무도 원본을 안 본 거예요, 『조광』의 원본을. 그

리고 이걸 자기 마음대로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처음 옮겼느냐 하면 어느 대학교 1학년짜리가 옮긴 것 같아요. 거기 ‘밤을 패서 걸어야 할 걸’이 있는데, ‘패서’인데 이 ‘패서’라는 말을 이 학생이 몰랐던 거지요. 그래서 ‘새서’로 바꿨어요. 그렇지! 마음대로 추측을 해서, ‘밤을 새서 걸어야 될 걸.’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이후 모든 ‘모밀꽃 필 무렵’이 다 ‘밤을 새서 걸어야 될 걸.’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밤을 새서 걷는다는 건 12시에서부터 6시까지 한 잠도 안 잔다는 거죠. 그런데 ‘밤을 패서’는 밤 2시까지 안 자고 공부한다. 이게 밤을 패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밤 3시까지 잠 안 자고 공부한다 이게 밤을 패는 거예요. 밤을 새는 건 아니지요. 밤을 새면 새벽에 해가 뜨는 걸 봐야지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비교를 해 보니까 잘못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했어요. 말도 못하게 재밌었어요.

무슨 ‘암샘을 내는 샘이나 저 놈의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암 내를 내는 샘이야’처럼 해석해야 됩니다. ‘내’를 ‘새’자처럼 읽은 거지요. ‘담도 생긴 터라’도 있는데, 동이의 뺨을 때리고 나서 담이 생겼대요, 술도 마신 터라. 그런데 ‘담’이 아니라 원본에는 ‘맘도’라고 분명히 돼 있는 거예요. 원본에는 ‘맘도’라고 돼 있는데 ‘맘’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담’으로 바꿔 봤어요. 그 다음에 ‘생’자가 ‘상’자의 잘못이에요, ‘마음도 상한 데다가’인데 ‘상’자가 이렇게 쓰면 ‘생’자처럼 보이잖아요. ‘생긴 데다가’로 판독한 거예요. 그건 누가 잘못했냐면 잡지 『조광』의 조판공이 잘못된 거지요.

**대답자:** 이런 걸 문학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 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정 작업을 전혀 하지 않은 거네요.

**임흥빈:**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 이것도 신나는 거거든요. ‘달의 숨소리’만 해도 이미 활유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짐승 같은’이 들어가 있으니깐 활유가 두 번 행해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달’을 조선달의 ‘달’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처음 듣죠? ‘짐승 같은 조선달의 숨소리’. 산 언덕배기를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네가 헉헉하는 거지. 나이 먹은 사람이 헉헉대는 숨소리 그야말로 짐승 같지. 그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효석을 전공하신 분이 영문과의 이상옥 선생님이에요. ‘이효



석'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셨던 분입니다. 그분한테 이게 조선달의 '달'이라 그랬더니 “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전적으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의 ‘달’을 하늘에 있는 ‘moon’으로 보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조선달의 ‘달’이라 그랬더니 참 그렇다고 하시는 거예요. (웃음) 아주 그렇게 쉽게 인정하기도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대답자:** 네. 석사 시절 이야기나, 결혼 생활에 대한 것, 그리고 아르바이트 이야기를 좀 더 듣도록 하죠.

**임흥빈:** 사실은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무급조교를 했는데. 교양과정부에서 무급 조교, 임시 조교를 했는데, 그래도 밥은 먹었어요. 공대가 하계동에 있었는데, 거기 버스를 타고 갔다가, 점심 사먹고, 저녁 사먹고 집에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뭘 해서 돈을 벌었는지는 조금 확실하지 않고요. 1971년도 10월부터는 유급조교가 됐으니까 그래도 2만 원씩 받았어요. 2만 원씩 받았는데, 자장면이 60원 했으니까, 비례식으로 하면은 한 7, 8십만 원 받은 거죠. 1972년도에 결혼했는데, 그 2만 원 가지고 결혼 생활을 했다가요. 밥해 먹고 살았어요. 애도 기르구. 1972년도 결혼했는데, 그거 가지고 살았어요.

**대답자:** 그때가 선생님, 석사과정…….

**임흥빈:** 석사과정에 했어요.

**대답자:** 아, 72년이면 일찍 결혼을 하신 거네요. 연세로는 어떻습니까?

**임흥빈:** 스물아홉 살? 우리 나이로 스물아홉에 결혼했어요.

**대답자:** 그 당시 스물아홉이면 빠른 건 아니죠?

**임흥빈:** 그냥 보통이에요.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갔다 와서 3년 3개월 갔다 왔으니까.

**대답자:** 결혼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임흥빈:** 결혼은 무슨, 아, 이화예식장에서 했네요. (웃음) 이화예식장이라고, 연건동에……. 이화예식장에서 심악 선생님이 주례를 맡아 주셨습니다. 사회, 사회를 누가 봤나, 아 홍윤표 선생님이 사회를 맡아 주셨습니다. 친구로는 홍재성 선생두 오구, 뭐. 김영한 선생두 오구. 이렇게 다…, 그러니까 교양과정부 조교들이 다 왔었지요. 하여튼 뭐, 조교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의 교양과정부 조교들은 기고만장했어요. 조교 모임을 했는데, 그 조교 모임 이름이 된 줄 아세요? 무수회예요. 조교수에서 수가 없다 그래서 무수회예요. (웃음) 그런데 그 하계동의 공대 근처 지금 산업대학 근처에 흐르는 냇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수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답자:** 그런데 그때 교양과정부 조교로 계셨던 분들이 결국은 다 서울대로 많이…….

**임흥빈:** 아니 그런데 그때 왜 기고만장했느냐 하면 전임 교수들은 수업하러 들어가고 나면 교수 휴게실의 바둑판은 다 조교들 차지였어요. 조교는 수업할 필요가 없으니까 교수 휴게실을 조교가 다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에 ‘부정에 관한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교양과정부 논문집에 실렸는데, 딴 대학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거기다가 국문과 조교, 뭐 이렇게 써 놓구. 논문 끝에다가 국문과 조교 그걸 써 놔지만 조교하고 전임을 크게 구별하지 않았어요.

**대답자:** 첫 강의는 어떻게 하셨어요?

**임흥빈:** 아마 해군사관학교에서 한 강의가 첫 강의가 아닐까요? 해사에서 교양 국어 한 게 첫 강의가 아닐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첫 강의를 너무 두루뭉수리하게 해가지구. 하기는 뭐 시범 강의도 하구 그랬어요. 그래서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범 강의를 안 했으면 그 사람을 못 만났을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앞으로 우리 방에 같이 있자 그래서 BOQ 1인실에 들어가서 기거했던 적도 있어요.

**대답자:** 그럼, 기억에 남는 강의는요?

**임흥빈:** 기억에 남는 강의도 있어요?

**대답자:** 예, 강의 혹은 제자…….

**임흥빈:** 제자는 뭐, 학위를 안 한 제자들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국어학이 너무 세상하고 너무 좀 동떨어졌다 그래도 사실은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은데 이게 다 세상 사는 일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구요. 국어연구원, 국어원 뭐 이런 일두 많이 있고, 뭐 북한의 언어에 대해서도 할 일이 많고…….

우연히 사실은 그 몇 가지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처음

간 게 89년이었는데 그 전에 북한의 언어 연구 뭐 이런 프로젝트를 맡은 게 있었거든요. 여러 사람이 함께 했는데 그때는 한국에 자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구 조금 위험했고, 북한자료라고 하는 게 뭐 처음에 김방한 선생이 알타이 어학을 할 때에 자료가 소련 자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크레이노비치(E. A. Крнейнович)가 길랴크어하고 한국어하고 비교한 그런 논문이 있는데, 그것을 뭐 어디다가 꼬깃꼬깃해서 숨겨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김방한 선생님. 그래서 지난번에 일본에 갔을 때 이런 논문도 있다고 옆에 있는 손희하 선생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게 우리 대학에 있습니다.’ 그러는 것이예요. 그게 왜 거기 가 있느냐고 했더니, 김방한 선생님이 거기다 기증을 하셨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알타이 언어학을 하실 분들은 전남대학에 갈 기회가 있으면 도서관을 한번 들러볼 필요가 있어요. 전남대학에 내려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책, 그것은 뭐 작은, 한 열 장쯤 되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김주원 선생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거야 우리 성백인 선생님한테 있지요. 그러는 거예요. 얘기하면 금방 빌려주시죠. 그래서 성백인 선생한테서 빌린 것을 또 복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료를 공유하는 팀에 국문과가 안 끼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것이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백인 선생님 자료가 인문대학 도서관에 좀 들어와 있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관심을 두시고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대답자:** 국민대학교 재직 시절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합니다.

**임홍빈:** 한번은 답사로 거제도 근처에 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면은 반드시 물에 빠져요. 국민대학에 처음 취직했을 때 영문과의 노교수 한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나 하면은, 영문과는 답사 안 가니까 좋다고.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 선생 부부가 초등학생 50여 명을 배에 태우고 가다가 배가 전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다 죽고 부부 둘만 살아서 나왔다는 얘기를 나한테 해 주는 거예요. 답사 갈 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요. (웃음) 아, 그때 보길도인가 그쪽으로 국민대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바닷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배 타는 건 딱 질색이야, 나 혼자 타는 건 괜찮는데 학생들 태우는 건 반드시 사고 나거든

요. 그런데 학생들이 배에 올라탔는데 배가 출렁출렁, 조금 있으면 다 물에 빠질 지경이 되었어요. (웃음) 배가 출렁일 때는 이미 건잡을 수 없어요. 어떡할 거예요. 배는 이미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학생들이 이쪽으로 쏠리고 저쪽으로 쏠리고 하고 있었어요. 바다로 들어가서 내가 배를 들어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건 할 수 없는 것이고. (웃음) 그때 내가 순간적으로 한 말은 “앉아!”였어요. 그런데 다 앉았어요. 이상하게 내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다 앉았는데, 그 덕에 배는 잔잔해졌지요. 많은 학생들이 갑판 위에서 서서 왔기 때문에. 배의 중심이 잡히지 않았는데다가 바람도 있었고. 아주 위험한 순간을 잘 넘겼습니다.

**대답자:** 대학원에 입학하셨을 때 학교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임흥빈:** 그때는 아주 절망적이었어요. 대학원에서 취직한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도 취직하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취직을 비교적 잘 하잖아요. 그때는 홍윤표 선생님도 취직이 안 돼 있었죠. 홍윤표 선생님이 나보다 3년 위거든요? 정광 선생님도 취직이 안 돼 있었고.

**대답자:** 공부하시는 데 슬럼프는 없으셨나요?

**임흥빈:** 아니, 슬럼프가 없을 리가 없죠.

**대답자:** 공부가 잘 안 되실 때가 진짜 있으셨어요?

**임흥빈:** ‘공부가 잘 안 될 때 넌 어떡하느냐’ 물었던 적도 있어요. 해군 사관학교에 화학과 교관이 있었는데, 제대 후에 서강대 교수가 되었다더라고요. 언젠가 한번은 인터넷에서 그 교수 이름을 쳐 보니까 논문이 230편이나 되었습니다. 1년에 10편씩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한테 공부하기 싫으면 뭐하느냐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놀아!” 그러더라고요. 하하하. 그 사람 말 따라서 놀아 본 적도 있어요. 하하하.

**대답자:** 하하하. 뭐 하고 노셨어요?

**임흥빈:**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런데, 음. 그 비결이 뭐냐고 하면, 하나의 논문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넣으면 안 돼요. 학위 논문을 쓴다고 하면 학위 논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몽땅 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는 남겨 두어야 합니다. 논문이 끝난 뒤에 남겨 놓은 것 하나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뭘 하나 그제 참 걱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전심전력을 다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아~, 이제 논문 못 쓰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논문의 하나가 내가 지금 잘못 썼다고 생각하는 게 명사구의 확장 규칙인가 그것이 있는데, 그게 학위 논문 쓰고 난 뒤에 쓴 논문이에요. 그때도 계속 학위 논문 쓰고 난 뒤에 위험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학위 논문 쓰고 난 뒤에 자기가 전부 다 거기에 털어 놓고 나서 뭐가 남겠어요? 그래서 뭐 좀 남겨 놓고, 그 뒤에 나머지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무슨 명사구 확장 규칙은 그거 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사실은 채귀사 논문이 통사 구조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었었는데 채귀사 가지는 통사구조를 만들 수 없다, 결론은 사실 그래요. 제 논문이 c-command를 기초로 하는 통사 구조로는 채귀사 문제가 기술될 수 없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명사구도 안 되지요. 그래서 큰 계획 같은 것은 한국어의 통사 규칙, 이런 것을 찾아내서 여러 군데 적용시켜 보는 것이었는데, 명사화의 확장 규칙이 그때에 남아서 써진 건데……. 사실은 조건이 나쁠 때 써졌어요. 컴퓨터도 없었어요. 그리고 컴퓨터도 없었다기보다는 학위 논문을 타이프로 쓴 거거든요. 전동타자기로 쓴 거구. 그 뒤에 그 무슨 뭐 X, XP, 그걸 뭐라고 하지요?

**대답자:** XT.

**임흥빈:** XT 단계에는 아주 형편없었던 거지요. 음. 네, 그래서 그 자료 같은 게 뭐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답자:**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임흥빈:** 시간은 음, 젊을 때, 젊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시간 관리 지금은 뭐 그렇게 자신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대답자:** 퇴임 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임흥빈:** 그러니까 정년 퇴직하면은 집에 있을 생각이예요. 명예 교수 회관에 들어가는 것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서대석 선생님은 ‘나는 거기에 안 들어가겠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거기 선배들이 꼭 계신데, 자기가 들어가면 맨 밑바닥이래요. 하하하. 거기 내가 왜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맨 밑바닥을 찾아서. 하하. 그렇잖아요. 거기에 자기보다 정년을 먼저 한 사람이 줄줄이 있고, 자기가 맨 나중인데, 맨 나중에 내가 왜 들어가느냐 그러데요.

그런데 거기 사무실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이익섭 선생님은 그러세요. 거기 맡아 놓고 계속 안 나오면 그것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대답자:** 아, 덕에 계실 계획이신데…….

**임흥빈:** 아, 집에 있을 계획인데, 방학 때 집에 있어 보면 하루 종일 일 하면은 저녁 때는 피곤해서 아무 것도 못 해요. 실지로 그래요. 그러면 저녁 때 조금 뭐 산책이라도 하다가 자지요 뭐. 그때는 그래서 아침까지 잘 잤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홉시에 자면 막 3시에 깹니다. 수업하고 집에 가는 날에는 예전에는 그래도 일찍 떨어지지 않고 11시까지 견뎠는데, 요즘은 수업하고 가면 여지없어요. 저녁 먹고 ‘내 눈아 좀 떠 있어라’ 그래요. 허허허 그런데 일찍 자면은 어떨 때는 막 2시에 깨기도 해요. 그러면 당신은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막 물으러 다녀요. ‘너 밤 4시에 깨면은 뭐 하나?’ 그러면 잠을 자려고 애를 쓰는 것은 아무 소용없고, 더 못 자고, 그럼 일어나서 하던 일 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면 뭐 몸이 견뎌내나요. 아침에 내가 잤어야 되는 시간에……. 그러니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잠을 잘 자야 해요. 지난번에 2월 달에 감기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 안 낫는 거예요, 2~3주 약을 계속 먹었어요. 그런데 나아야 말이지요. 잠을 충분히 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사실은 잘 못하고 있다고나 할까요?

**대답자:** 올빼미형과 아침형으로 나누면 어느 쪽이셨어요?

**임흥빈:** 젊었을 때 다 누구나 다 올빼미형이지요,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게 숙면을 취하는 게 제일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병도 생기고 그러면은 잘 자지를 못해요. 뭐 어떻게 숙면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까?

**대답자:** 선생님! 주제와 통사 구조처럼 뚝뚝한 책을 쓰시려면 시간을 딱 정해 놓고……. 하하.

**임흥빈:** 아니, 그게 한국학 연구비를 받은 것이 3년이 된 거죠. 쓰는 데만 3년 걸렸다고 봐야죠. 그게 첫째 둘째 해는 그냥 노는 거구, 셋째 해……. 그리고 기본적인 요지는 일본에서 발표를 한 거죠. 일본에 간 것이 2002년인데 그때 주제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이 한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한 생각을, 99년에 우리가 작업을 한 통사 분석 표지 권장안의 통사 분석 모델에 접합시킨 것입니다. 그게 2007년에 나왔으니까 생각은 오래 했는데, 정작 쓰는 데는 한 1년여 걸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답자:**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쓰신 논문 중에 제일 애착이 가는 논문은 어떤 논문이예요?

**임흥빈:** 별로 없죠, 아파. 아니 그런데 내가 참 부러워했던 것은 김광해 선생이 한글 자모 108자를 발견한 거예요. ‘나랏말싸미 中國에 달아’ 이거 숫자를 세어 봤더니 108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것을 왜 나는 발견을 못 했을까요. 그거 세어 보기만 하면 되었을 텐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서 김광해 선생이 발견했죠? 붓글씨를 쓰다가 그 숫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숫자를 김광해 선생이 발견을 했다 그것을 어디서나 꼭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처럼 언해본에 글자를 세어 보면 108자다 이런 얘기를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을 김광해 선생이 발견한 거다 맨날 그리고 다녔지요. 그런데 훈민정음 자모의 음가 설명에 나타나는 예시자들이 있는데, 처음에 ‘ㄱ 君字初發聲, ㄴ 蚘字初發聲, ㅋ 快字初發聲 ○ 業字初發聲’ 이런 음가 설명이 나옵니다. 예시자 ‘군규쾌업(君蚘快業)’이 단순한 예시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결합이 의미를 전달하는 한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은 저예요. 저는 이것을 ‘세기(世紀)의 발견(發見)’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답자:** 그래서, 수양대군하고 세자하고…….

**임흥빈:** 그거, 그것을 아직도 모르겠어요?

**대답자:** 선생님이 처음 하신 건 몰랐어요, 제가.

**임흥빈:**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모 교수가 고대에선가 발표를 했어요. 거기서 발표를 하면서 아, 제 이름을 이야기 안 하고 김광해 선생의 108자만 이야기하면서 ‘군규쾌업’이 임금과 신하가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있었어요.

**대답자:** 더 애착이 가는 논문이 있으신지요?

**임흥빈:** 애착이 가는 것은 뭐, 석사 논문도 나는 귀중하게 생각하는데.

왜, ‘군규괘업’, 이것도 나는 세기의 발견이다 그리고 앉아 있거든요. (웃음)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다 눈 뜨고 있었는데 못 본 것이거든요.

대답자: 예. 그렇죠.

임흥빈: 다른 사람 다 눈 뜨고 있었는데 그걸 왜 못 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蚩’자를 안 찾아 본 것입니다. ‘蚩’자를 아무도 안 찾아봤어요. 옥편에 ‘용의 새끼’라고 되어 있는데, ‘아차’ 한 거예요. 이 ‘蚩’자. 당연히 ‘蚩’자지 그랬는데 ‘용의 새끼’야. 그런데 권재선(1988, 『훈민정음 해석 연구』, 우골탑) 선생이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죽 지켜봤어요. 훈민정음 예시자들을 임금으로 시작해서 풍년으로 끝난다고 해석했어요. 임금으로 시작해서 풍년으로 끝났다고 하니까 그 글자가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줄줄이 한문이라는 것은 간파하지 못했어요. 개별적인 단어로 임금이 제일 처음에 오고 풍년이 뒤에 왔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안병희 선생님이 또 어디에 선가 그것을 ‘이게 뜻을 가지고 있는데 깊이 천착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넘어가셨어요.

안병희 선생님께서는 훈민정음은 비밀리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실록을 잘 읽어 보면 어느 왕자는 부처를 만들고 그런 게 있어요. 세종은 대궐 옆에다가 불전을 지었는데, 거기에 쓸 불상을 왕자한테 시켜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몰래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야 불상은 누가 만들어라’ 했다가는 불전을 못 지어요. 그러니까 비밀리에 부처상은 니가 만들어라 해 가지고 아무도 몰래 불상을 만들어 가지고, 불전이 다 된 뒤에 부처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무슨 왕자가 부처상을 만들어서 왔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왕비가 죽을 때에는 대궐에서 안 죽는 거 같아요. 소헌왕후가 죽었는데 밖에 나가서 죽더라구요. 여하튼, 임금이 비밀 지령을 내릴 수야 충분히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우두머리가 비밀 지령은 내릴 수 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번에 정신문화연구원에서 정광 선생이 훈민정음하고 파스파문자 국제 학술회의를 해서 전 세계 파스파 문자 학자들을 모아 보자 하고, 전 세계 파스파 문자 학자들을 다 모아 놓았어요, 종래에는 파스파 문자하고 훈민정음하고 관계가 있다고 대전제를 했어요. 그런데 인티



넷을 들여다보면 아시겠지만, 훈민정음하고 티베트 문자하고 비교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티베트 문자하고 훈민정음하고의 관계 그것을 또 발표를 했지요. 파스와 문자보다는 티베트 문자하고 더 가까워요. 더 가까운데, 거기에 변음토착(變音吐着)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공주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변음토착을 풀었다 그런 언급이 있어요. 그런데 변음토착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변음토착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말한 사람은 몇 있어요. 박지홍 선생도 있고, 정광 선생도 있고, 그런데 안병희 선생님은 신중하셨죠. 지금은 모른다고 해야 정직하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티베트 문자에는 변음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아’로 적고 ‘자’로 읽는 거예요. 그런 게 한 뭇 가지가 있습니다. 파스와 문자하고 티베트 문자하고 가장 큰 차이는 티베트 문자에는 안 읽는 글자들이 많아요. 다르게 읽는 글자들 그러니까 순수한 부호들이 많은 거지요. 파스와 문자는 순수한 부호는 별로 없고 다음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지금 기일성문도(起一成文圖)라고 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기일성문도에는 음이 있어요. 이렇게. ‘/’ 하면 ‘/’의 음이 달려있단니까요. 그것을 주의 깊게 안 봤어요. ‘ㄱ’과 같은 것은 ‘급’이라고 돼 있어요. 급(及)자요. ‘흡’이라고 돼 있거든요. ‘ㄴ’은 똑같이 ‘隱’이야. 그러니까 음이 틀림없이 달려 있는데 그 음을 바꿔서 ‘기역’이라고 읽은 거예요. ‘기’라고 읽든지. 변음이잖아요. 음을 바꿔서 한국말로 읽은 것입니다. 한국음을 단 거지요. 세종대왕은 야, 요걸 뭐라고 할까 고민하는데 정의공주가 ‘기’라고 합시다. ‘군’에 해당시킵시다. 세종대왕도 그걸 다 완성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풀어 보라 그랬더니 정의공주가 풀어 왔다는 거 아니예요. 그 음을 ‘급’이라고 하지 않고 기역을 ‘기’, 니음을 ‘니’ 이렇게 음을 정한 거지요. 또 하나는 그러면 티베트 문자나 파스와 문자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모음이 있는 거예요. 기일성문도에는 모음이 없어요. 글자만 있고. 티베트, 파스와 문자에는 모음이 있는 거예요. 훈민정음 당사자는 모음의 원리를 여기서 터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자는 모음을 따로 독립시키지 못하지요.

**대답자:** 다음 질문은 애착을 가지시는 책입니다. 까뮈의 이방인, 반향

인…….

**임흥빈:** 까뮈의 책들이 다 좋은데 『반항인』도……. 『반항인』……. 그런데 그 사르트르도 읽어보라고 그러고 싶은데…….

**대담자:** 사르트르 책을 다 좋아하세요? 소설류나 철학책, 희곡류, 다 좋아하세요?

**임흥빈:** 사르트르를 좋아하진 않아요. (일동 웃음) 『존재와 무』만 읽고 감명을 받았지요. 그리고 불문과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사르트르는 죽어서도 책을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숨겨놓은 책이 발견되니까요. 소설류 이런 건 까뮈를 못 당하지요. 까뮈는 문체 자체가 좋아요. 까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까뮈를……. 그리고 사르트르는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의 생각은 철학은 존경할 만하지만 소설은 너무 작위적이다, 실제로 배경이 너무 작위적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요.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어려운 책들은 무한한 시간이 주어져야 돼요.

**대담자:** 읽을 가능성이 있는 책 중에서 최근에 보신 책 중에 추천하실 만한 책은요?

**임흥빈:** 최근에는 뭐…….

**대담자:** 사르트르의 책이 국어학에도 도움이 되나요?

**임흥빈:** 실제로 제일 처음에 쓴 것이 ‘-게’인가 ‘-음/기’인가, ‘-음/기’를 먼저 쓴 것 같네요. ‘-음’하고 ‘-기’의 차이가 사르트르의 ‘즉자(卽自)’하고 ‘대자(對自)’가 있는데 즉자하고 대자의 차이와 너무 같은 거예요. 부사화에 있어서는 ‘-게’가 눈에 보이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하려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곱게 보내드리우다’에는 ‘곱게’가 눈에 보이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곱게’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형태가 손상되지 않은 것이고 ‘고이’는 내 맘의 상태입니다. ‘-게’하고 ‘-이’의 차이가 사르트르가 구별해 놓은 ‘즉자’하고 ‘대자’의 차이에 잘 들어맞는 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했거든요. 그런데 양동휘 선생님께서 보시고는 ‘언어학적인 술어로 얘기하십시오. 이것은 언어학적 술어가 아닙니다.’ 하셨지요. 그러나 결론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였지요. 언어학적

술어는 [+존재] [-존재]였거든요. ‘-음’은 [+존재], ‘-기’는 [-존재]. 그런데 그때는 ‘-기’를 [+action] ‘-음’을 [-action]이라고 했는데 정확치 않았어요. 그런데 뭐 ‘이 방이 조용하기가 이를 데 없다.’ 이게 뭐 액션인가요? 액션하고 비액션으로는 잘 설명이 안 됐어요.

그때 명사화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해 가지고 한국에 오신 분이 이맹성 선생님이에요. 이맹성 선생님이 명사화를 했기 때문에 ‘-음’하고 ‘-기’가 뒤죽박죽이 됐어요. 잘 따져보면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맹성 선생님을 타깃으로 삼아 맹공격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논문을 쓰셨어요?’ 하는 질문을 받은 일이 있는데, 속이 뜨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공격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공격받는 게 자랑이지요. 생각해 보면 자기를 누가 공격하겠어요? 공격해 주는 게 좋은 거 아니예요?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거보다.

그런데 ‘-음, -기’하고 ‘-게 / 이’ 하고 거의 똑같아요. 원리적으로 똑같지요. 그 설명 방법은 사르트르에서 온 거예요. 설명 방법이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를 것이 많았어요. ‘있는 바의 것이 아니고 있지 아니한 바의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웃음)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바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부정이에요. ‘있지 아니한 바’의 것은 미래의 것이에요.

**대답자:** 선생님께서는 취미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공부 외에는 없으실 것이다’라는…….

**임흥빈:** 국민대학에서 바둑대회 1등 했다는 거 모르시죠? 국민대학에서 교수 바둑대회를 했어요. 맨 마지막에 결승전을 누구하고 했냐면 이성무 선생하고 했어요. 네 점을 났나 뭐 그랬습니다. 첫 번 개가 후 내가 이겼어요. 일등 상패를 가져왔어요. 바둑판. 일등상이 바둑판이에요.

**대답자:** 요즘도 바둑을 두세요?

**임흥빈:** 요즘은 못 둡니다. 젊었을 때는 당구도 조금 쳤습니다. 해군에 가서 200까지 올라갔어요. 지금은 어렵도 없지요.

대답자: 못하시는 건 뭐였어요?

임흥빈: 돈 드는 건 다 못했어요. 지금은 다들 골프 친다 그러는데…….

대답자: 테니스도 좋아하셨죠.

임흥빈: 테니스도 옛날에 쳤죠. 해군 가서 테니스 치는 것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열심히 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문리대에 들어와서 벽치기를 많이 했죠.

대답자: 가무는 어떠신가요? 음주는 많이 하셨다고 하시니까.

임흥빈: 술 많이 하는 사람이 춤에 대해선 잘 못하는 거 아시죠? 앉아서 술만 마시니까 춤은 잘 못 춥니다.

대답자: 그럼 노래는 예전에 많이 하셨나요?

임흥빈: 노래도 예전에는 아, 내가 잘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 어느 순간, 당신이 바로 음칩니다 하고 음치 판정을 받았어요. (웃음) 특히 박자를 못 맞춥니다. 노래방 기계에서 나오는 4, 3, 2, 1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저는 곡이 들어가기 전에 맨날 먼저 들어가요. 그런데 사실은 음악을 하고 싶어서 애를 많이 썼죠, 사실은. 우리 집 피아노는 우리 집사람은 막 구박을 하는데 나는 그걸 신주단지처럼 위합니다. 지난번에는 한번 수릴 해보자 그랬어요. 수리를 해서 거금 20만 원을 들였으니까 꽤 비쌌죠. 그래도 그동안 한번도 조율을 안 한 걸 생각하면 좀 덜 들었다 싶어요. 그 피아노가 지금 40만 원밖에 안 된대요, 그게. 너무하죠.

대답자: 몇 년 된 건데요?

임흥빈: 그 70년도쯤에 60만 원이나 준 거거든요. 상당히 비싸게 준 거예요. 그것도 새 거가 아니고 헌 것을.

대답자: 그때 선생님이 치시려고…….

임흥빈: 어떻게 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애들이 좀 쳤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실로폰을 많이 쳤어요. (웃음) 아니 그런데 그 때, 실로폰 친 사람은 드물어요. (웃음) 진짜 실로폰 쳐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대답자: 재미로 하셨다는 거죠? 취미로.

임흥빈: 그러니까 내가 아는 노래를 다……. 그게 진짜로 쳤는지 어땠는지 그건 나만 아는 거죠. 나만 아는 거지마는 그래도 악보를 보고 그 멜로

다가 나오게…….

대답자: 피아노도 치기는 치셨단…….

임홍빈: 아 그렇진 않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대답자: 학원 다니시진 않고요?

임홍빈: 지금 며느리들이 들어와서 ‘학원에 다녔으려는 간단한데 왜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곡 하나만 완전하게 치는 거거든요. 곡 하나만 완전하게 칠 수 있으면……. 그래서 일본에 있을 때에도 왜 거기 전자 피아노 있잖아요. 음이 나오면 스스로 지가 건반을 누르는……. 그걸 살까 말까 얼마나 망설였는지 모르지요. (웃음) 그런데 그것을 사 가지고 와서 통관을 하려면 세관에 버려질까 걱정도 돼서……. 그래도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나. 못 하는 것은 포기해야지요 뭐.

대답자: 혹시 최근에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정년 후에 취미를 하나……?

임홍빈: 열심히 산보하는 게 취미지요. 뭐. 열심히 산보나 하고 사는 거지요. 그런데 열심히 산보나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왜 칸트가 일정한 시간에 산보를 했다, 그거 할 수 있을까요?

대답자: 지금 교수 이외에.

임홍빈: 그런데 별로 생각은 못 해봤어요. 세상에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걸 하겠다, 뭐 그런 건 아니죠. 모르겠어요. 하여튼 국어를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한국어를 다루는 것을 말도 못하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어를 하시는 분인데, 그래도 ‘당신은 한국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은 이분들에 비하면 아주 행복한 것입니다.

대답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 번. (일동 박수)

## 대담 2: 학문

**대답자:** 오늘은 선생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여 선생님의 학문을 조망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주제를 나누어 대담을 진행하겠습니다.<sup>2)</sup>

### \*생성 문법

**대답자:** 선생님이 처음 쓰신 논문이 70년대 ‘생성문법의 한 문제’라는 논문인데 어떻게 생성문법을 접하고 공부하셨는지요. 저희야 강의가, 국문과는 아니지만 대학원 영문과에 개설되어 있어서 수강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는 강의가 개설되어 있지도 않았을 테니 말입니다.

**임흥빈:** 대학 다닐 때는 생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해군에 가서 도서관에서 책을 하나 본 것이 있는데 그것이 *Aspects(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라는 책이었습니다. *Aspects*라는 책이 해군사관학교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관을 하셨던 공영일 선생께서 *Syntactic Structures*라는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Syntactic Structures*는 학부 졸업할 무렵 심악 이승녕 선생께서 책의 일부분을 복사해서 나누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복사가 아닙니다. 타이핑을 하여 등사기로 민 것이었다고 기억합니다. 당시 *Syntactic Structures*의 이론적인 부분을 복사한 것 같은데 아무런 흥미도 느끼지 못하였고,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세계적인 언어학 이론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군대에 가서 보니 공영일 선생의 책장에 *Syntactic Structures*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려서 원본 책을 구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한한 문장 생성을 위한 유한한 규칙과 같은 것이 흥미롭기는 하였습시다만, 그것을 한국어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난제였습니다.

2) 대담은 2009년 8월 6일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의실 1동 302호에서 이루어졌다. 참석자는 김선영, 김선호, 남미혜, 남수경, 박재연, 서경숙, 신서인, 이은경, 이은섭, 이흥식, 최정진, 최형강이었다. 여러 사람이 번갈아 임흥빈 선생님께 질문을 했으나 이를 모두 대답자로 표기하였다.



그렇기 때문인지 *Syntactic Structures*에는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에 있던 *Aspects*라는 책의 처음 부분에는 상당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영어의 5형식 문장 ‘John had a book stolen from the library.’라는 문장이 세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한 것이 흥미를 끌었습니다. “존이 도서관에서 훔친 책을 가지고 있다. 존이 책을 도서관에서 훔치게 했다. 존이 책을 도서관에서 훔쳤다.”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분석해 낸 것입니다. ‘아, 생성문법이 이렇게 문제를 발굴해 내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 문장이 한 가지 뜻밖에 없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 문장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의미가 그렇게 분석될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국어학 전공에 적을 두고 있었는데 적을 두고 있지 않았으면 국어학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67년도에 졸업을 하고 대학원에 입학할 때 입학시험을 쳐야 했고 전공을 나누어서 들어가야 했는데 국어학 시험을 치고 입학하고 군대를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 가서는 문학 공부만 했습니다. 역사, 사상 공부만 했습니다. 어학 책으로는 맨 마지막에 걸린 것이 *Aspects*였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다시 복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Aspects*책에서 be 동사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습

니다. 잘 들여다 보면 지금도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be 동사와 관련해서 한국어의 ‘이다’ 문제를 한번 다루어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상하게도 ‘독촉이다’와 같은 예가 떠오른 거예요. 틀림없이 ‘독촉이다’에서 왔을 텐데, 저의 직관에는 ‘독촉이다, 그 사람이 너무 독촉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심술이다’는 행동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심술이다’는 긴가 민가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독촉이다’는 확실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논문 ‘생성 문법의 한 문제’는 ‘낙산어문’이라는 국문과 잡지에 실렸는데 ‘이다’와 ‘하다’와의 관련성을 나름대로는 파헤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보면 참 우습죠. 그 당시로는 그것이 내 주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문의 길을 들게 되는 것,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느끼는 것은 자기 주장이 생길 때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생성 문법의 한 문제’에서 내가 할 부분이 있다고 어렴풋이 느낀 것 같습니다. 70년 제대 후에 읽은 책으로 기억합니다만, D. A. Reibel & S. A. Schane이 편한 *Modern Studies in English*라는 여러 사람 논문을 모아 놓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J. S. Gruber가 쓴 ‘Topicalization in Child Language(아동어에서의 주제화)’가 실려 있었는데 그 논문이 영어를 말하는 아이들의 언어는 topic-comment structure이고 그것이 차츰차츰 subject-predicate 언어로 발전해 나간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즉 70년대 초에는 이중주어 문제가 국어에 대한 생성문법적 논의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Gruber의 ‘아동어에서의 주제화’를 적용하면 잘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긴 것이 저의 석사논문입니다. 당시 저로서는 한국어의 핵심적인 현상에 생성 문법의 방법론이 적용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린 나무그림은 지금 보면 결함투성이이지만, 저로는 독자적인 생각을 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생성문법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것은 구조주의의 한계 때문입니다. 구조주의가 의미를 과학적으로 다룰 수 없다고 하여 기피하였는데, 의미가 소리와 함께 언어의 중요한 일부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생성문법이 의미를 다룰 수 있을지 모른다 혹은 다룰 수 있다



는 희망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논문이 생성문법을 정확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어의 통사적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대답자:** 생성문법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흥빈:** 생성문법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요. 생성문법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촘스키 생성문법은 그 성격이 기본적으로 ‘도출(derivation)’이에요. 도출은 A라는 단계에서 B라는 단계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도출을 생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출이 없으면 생성문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성문법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어떤 요소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해 왔다고 보려고 합니다. 이동이 완료되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주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이동해 왔는데 왜 문제가 해결됩니까? 생성이나 변형은 A라는 단계에서 B라는 단계까지 도출해 옵니다. 도출하지 않으면 생성문법이 안 되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령 비대격(unaccusative) 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arrive와 같은 것이 비대격 동사에 속합니다.

[        ] arrives the train at the station

The train<sub>i</sub> arrives [ t<sub>i</sub> ] at the station

그래서 ‘The train arrives’ 하면, arrive의 기저 구조에는 목적어가 the train으로 상정됩니다. 이게 비대격동사 구성이에요. the train이 arrive의 목적어 위치에서는 격을 못 받으니까 주어 자리로 이동을 해서 주어 자리에서 주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train arrives at the station’ 같은 문장이 만들어진다고 하지요. ‘unaccusative’ 구성을 설정하여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there 구성이에요. 주어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 자리에 there가 들어가면 ‘There arrives a train at the station’과 같은 문장이 되는 거죠. ‘unaccusative’ 가설을 믿는 사람들은 영어의 there 구성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unaccusative’

가설은 도출을 충족시킵니다. ‘The train arrives at the station’이라는 문장이 그냥 그대로 주어졌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의 성분이 다른 데서부터 왔다고 해야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직관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한국어에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있다’의 목적어가 사람이고 그것이 주어 자리로 이동해서 주격을 받는다는 것이 신선경 선생의 얘기죠. ‘있다’의 목적어 자리에 ‘있다’의 주어가 있다가 다시 이게 주어 자리에 와서 주격을 받는다는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derivation이 성립하고 또 derivation적인 것으로 만족하면 별 문제 없다 이렇지 몰라도 실제로 잘 보면 ‘There arrives a train’이라고 하는 문장하고 ‘A train arrives’라고 하는 문장이 다른 문장이예요. 그렇죠? 다른 문장이예요. 그러니까 ‘There arrives a train at the station.’ 하면 이것은 존재 도입문, 존재 도입문인데 ‘A train arrives at the station’ 하면 이걸 존재 도입문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주어가 비대격 동사의 목적어 위치에서 주어 자리로 이동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의미가 변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존재 도입문이고 하나는 존재 도입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생성문법이 가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생성이 목적을 가지지 않고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John likes Mary’라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생성을 한다는 건 사실상 생성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찰스키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John likes Mary’라고 하는 결과물을 알고 시작하는 것은 생성이 아니라 분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성문법에서 생성은 목적을 가지지 않고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나 생성이 목적을 가지지 않고 진행되면 문장은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 됩니다. ‘John likes Mary’라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 생성을 한다고 해야 그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데에서 John을 사전에서 가져오고 또 like를 사전에서 가져오고 -es를 사전에서 가져오고 Mary를 사전에서 가져와서 이것들을 합쳐서 즉 merge해서 ‘John likes Mary’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John이 왜 선택됐고 Mary가 왜 선택됐습니까? ‘John likes Mary’라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John도 가져올 수 없고 Mary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

태로 해석해서 되어야 되느냐 하면 John의 자리에다가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 전부]+[앞으로 세상에 있을 사람들 전부]가 모두 그 자리에 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like의 자리에 like를 채울 수 있는 동사 모두 다, 그 다음에 목적어의 자리에 Mary를 포함해서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하고 앞으로 있을 사람들 전부 다 넣어 문장을 다 만들어 낸 뒤에 “아, 요것이 내가 만들려는 문장이다. ‘John likes Mary’가 내가 만들려던 문장이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도 없어요. 만들려던 문장이니까 처음부터 ‘이 문장을 내가 만들려고 한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적이 없으면 수없는 문장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생성은 목적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목적이 없이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 촘스키의 생성문법이에요. 그런데 목적 없이는 거짓말이고 사기예요. 가령 numeratio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lexicon에서 필요한 어휘적인 자료를 가져오지요. 왜 가져오는지 몰라요. 왜 가져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John, Mary, like’와 같은 어휘 항목들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numeration이라는 장치를 마련했어요. 그것은 간교한 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John likes Mary, Suzan likes Harry 이렇게 and로 연결된 A likes B, B likes C, C likes D 비극적인 관계의 이런 문장이 줄줄이 이어졌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그 둘을 짝지어 줄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가 만들어 내려고 하는 문장을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알고 있는 거는 맨 마지막 것을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잖아요. 맨 마지막 것을 분석하는 거하고 다르지를 않아요. 생성문법을 한다고 하면서 정직해지기 위해서는 ‘나는 맨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문장을 알고 한다’ 그래야 해요. 그러나 그거는 생성이 아닙니다. 촘스키가 생각하는 의미에서의 생성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딜레마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신도 할 수 없습니다. 신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촘스키는 ‘look ahead’ 하면 안 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성은 필연적으로 look ahead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성문법 하는 사람들은 생성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분석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미 완성된 문장을 분석하고 있는 거지 생성문법을 하고 있는 게 아니예요. 생성문법을 하고 있

다고 그러면 생성을 하기 위한 첫 명령어를 얘기해야 합니다. 생성을 하기 위해서 ‘create’라고 할 거냐, ‘do’라고 할 거냐를 밝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는 하나는 어떻게 하든 derivation을 해야 생성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데 다른 하나는 생성 자체가 논리적으로 목적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생성은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목적이 없으면 생성이 성립하지 않는 거지요.

현재의 행동에 뜻을 부여하는 게 뭐죠? 미래예요. 목적은 미래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목적이 미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현재에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명확하게 얘기한 사람은 사르트르예요. 어떤 문제가 문제의 대상이 되느냐 하면, 인생에 뜻이 없어서 자살하는 경우 같은 거예요. ‘인생에 아무런 뜻이 없어서 자살한다’ 그제 무슨 뜻을 갖죠? 의미가 영(0)이라는 말이에요. 현재에 사는 것의 의미가 영(0)인데, 다시 사람이 하는 행동, 자살도 행동이잖아요. 자살이 자기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특히 인생이 의미가 없어서 자살하는 경우에, 의미라고 하는 거는 미래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자살을 하면 미래에 자기가 없잖아요. 미래에 자기가 있어야지만 거기서부터 의미가 올 수 있는 것인데 미래에 자기가 없으니까, 현재의 인생이 의미가 없다고 하면, 의미가 영(0)인데 그 영(0) 속에 또 영(0)이 있는 것이예요. 인생에 의미가 없어서 자살하는 거는 영(0) 속에 들어 있는 또 다른 영(0)입니다. 이게 사르트르의 설명 방식이거든요. 그것 밖에 얘기를 안 한 거죠. 또 하나는 카뮈의 설명 방식이에요. 카뮈의 설명 방식은 의식이잖아요. 무의미, 인생에 의미가 없다, 인생이 살 만한 가치가 없다. 그래서 죽는다. 그런데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기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하면 의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식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카뮈에 의하면 인생에 의미가 없어서 죽는다, 인생은 살 만한 가치가 없어서 죽는다고 하는 거는 죽으면 의식도 없어지니까 의미가 없다는 의미도 없어진다 혹은 인생이 살 만한 가치가 없다는 가치도 없어진다. 이게 카뮈적인 설명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라 그런 식인데 사르트르는 그러니까 살아라 하는 얘기는 없어요. 미래에서부

터, 목적에서부터 현재의 행동의 의미가 오는 거죠. 이걸 분명해요. 생성도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생성이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거죠. 촘스키가 태어난 시대, 촘스키가 생성문법을 한 시대는 인간은 백지로 태어난다는 시대적인 전제가 작용하고 있었지요. 사람은 백지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은 시대에 촘스키가 ‘언어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고, 뭔가 더 있다,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더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전체의 전제는 인생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 아니에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지만, 이걸 뭘 가지고 태어난다고 할 수 있나요? 촘스키적인 생성은 목적을 가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답자:** 앞으로 생성문법이 어떤 식으로 전개 극복될지와 관련한 향후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임흥빈:** 향후 전망이라면, 아주 깜깜한 거죠. (일동 웃음) 생성문법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기엔가에 이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깨달은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촘스키가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서 줄줄 끌려가는 것입니다. 덫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가능한 한 굉장히 어려운 이론을 다시 만들어내 가지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 몇 년 걸리게 만들고 다시 도망가서 다른 이론을 또 만들어 내는 거예요. 이런 전략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HPSG나 LFG 이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촘스키에서 완전히 탈락한 사람들이, 탈락, 아니 방향을 튼 사람들이 전산언어학 쪽에 있어요. 전산언어학 하는 사람들은 촘스키 없이도 하는 것이고 전산언어학에 촘스키 문법은 거의 무력합니다. 촘스키 언어학으로 전산언어학을 할 수 없어요. 촘스키의 생성문법을 ‘전산 처리 해 보자’ 이것은 거의 시도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전산언어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목록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보조사 연구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고 물으면 보조사 목록을 달라고 하지요. 보조사 목록은 우리들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신은 필요 없다. 우리가 하겠다’ 그래요. 전산언어학을 하는 사람들은 언어학자를 갖다 놓으면 전쟁만 하고 언어학자들은 불필요한 것만 주장한다고 하고 자기네들이 하는 방식을 찾아가려고 그래요. 촘스키 주변

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촘스키의 주장을 철저하게 신봉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Theta- role이라고 하는 것이 configuration에서 결정된다, 이런 것을 주장한 사람들도 있어요. 통사구조를 아주 단순하게 그리면, 주어 자리에 agent theta-role이 오는 것 같고 목적어의 자리에는 theme theta-role이 오는 것같이 생각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통사를 잘 살펴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생성문법은 큰 각성을 해야 됩니다. 생성문법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전략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설명 방식을 아주 정교하게 해서 보통 사람은 쫓아올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 그걸 쫓아가려면 수년 정도 걸리게 해 놓는 것입니다.

**대답자:** 예, 비판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일동 웃음) 선생님 사용하신 표현이 과격한 말씀이신데요. 처음 쓰신 논문이 생성문법이고 지금도 선생님이 생성문법을 가장 깊이 공부한 걸로 다들 알고 있는데요. 선생님의 학문 세계에서 생성문법이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계신테도 계속하고 계시는지요?

**임흥빈:** 그러니까 처음에 한 것이 <생성문법의 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생성문법에 수십 가지의 문제가 있고 그 중 한 문제죠.

**대답자:** 이론들을 많이 원용하셨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어떤 장점이 있어서 그래도 논문 쓰실 때 사용하시는지요.

**임흥빈:** 아니, 정확하게 지금 그걸, 질문을 정확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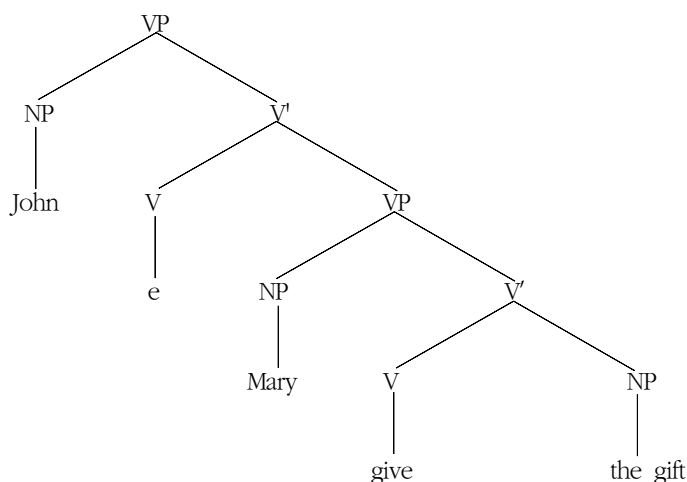
**대답자:** 넓은 의미에서 사람들이 선생님 논문을 읽게 되면 ‘생성문법의 틀을 사용하셨구나’ 이런 인상을 받게 되거든요. 생성문법을 버렸다거나, 전혀 생성문법 연구가 아니다 이런 느낌이 없는데요.

**임흥빈:** 그 생성문법을 쫓 쫓아온 거죠.

**대답자:**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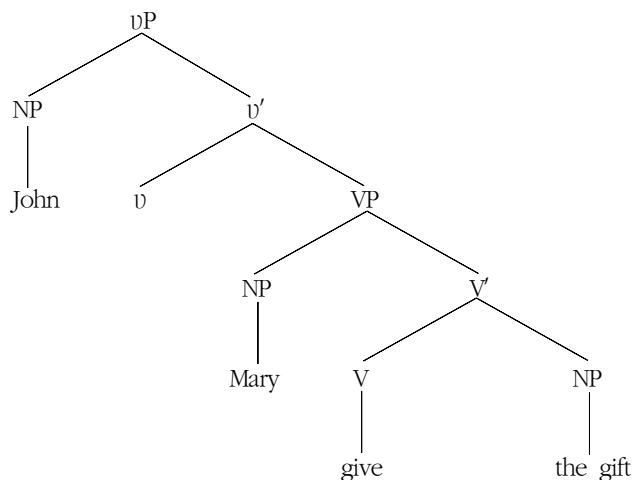
**임흥빈:** 그렇죠? 생성문법 자체를 얘기하면, projection principle이 유지되던 시기가 있어요. projection principle이, 투영 원리라고 합니다. 투사 원리라고도 했는데. projection principle은 뭐냐면 어휘의 통사적 특질, 즉 어휘의 논항구조와 같은 것이 통사구조에 반영된다는 것이 projection principle이죠. 그러니까 어휘적 속성이 모든 층위의 통사구조에 반영된다는 것입니

다, 그러니까 D 구조, 뭐 Deep Structure, Surface Structure, 뭐 LF Structure 이렇게 있으면 이 세 가지의 통사구조라고 하는 것에 어휘적인 속성이 반영된다는 것이 1981년도 지배결속 이론이에요. 저는 지배결속이론이 가장 합당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생성이 있지만 어휘구조가 통사구조에 반영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때에는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성문법은 의미 구조가 밑바탕이 돼 가지고 그것이 표면구조로 온다는 느낌을 계속 주어 왔어요. 그런데 그 언급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애를 쓴 적이 있었는데 별로 찾아지지가 않았어요. 생성은 meaning과 sound를 연결시키는 거다, 이런 기술이 어딘가 있는 거 같았는데 실제로 찾으려고 하니깐 잘 안 찾아져요. meaning과 sound와의 관계. 그러니까 meaning이 주어지면 그것이 소리로 만들어진다, 그런 느낌을 계속 주어왔거든요. 그런데 생성문법이 어휘적인 속성을 떠난 지점이 있어요.



Larson이 give 동사를 분석하면서 VP Shell이라고 하는 걸 도입했을 때입니다. 동사구 껍데기라고 저는 얘기하는데요. Larson이 이렇게 S인지 VP인지 불확실한 단계에서 여기 주어가 이렇게 있다면 VP를 하나 더 도입을 해

요. VP 하나를 더 도입하면 NP가 하나 더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V', 한국어 같으면 주어 목적어 동사 이런 식으로 오는데, 이걸 VP 껍질이라고 보면 VP 껍질이 하나 더 설정되는 걸 말해요. 그럼 give를 어디다 댄냐 하면 give를 여기다 놓죠. 영어로 하는 게 더 편해요. 영어로 보이면 V', V, NP, 이게 주어, 목적어입니다. give를 여기다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John이 Mary한테 선물을 주었다고 하면 Mary, the gift 하고 give가 이 자리에 들어갔어요. 이것은 give의 lexical property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give의 어휘적인 속성은 John이 give하는 거지, Mary가 give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양동휘 선생의 소개 책자를 보시면 Mary가 선물을 가지니까 여기에 give가 있어도 괜찮다, 이쪽으로 이동하면 give의 흔적이 있는데 give의 흔적은 '가진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과 같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걸 give를 '가지게 하다' 이런 식으로 어휘해체를 한 거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하면 give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give는 어휘적인 속성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Larson의 논문으로 그냥 내버려 뒀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그런데 Larson의 이 frame을, 이런 분석법을 촘스키가 도입하고 모든 사람이 이것을 가져왔는데, 촘스키는 얼마나 또 영특하냐 하면. 이걸 small v라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give가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아무것도 아녜요. 이것은 give가 들어가 차지하는 자리지 동사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조는 동사가 VP를 보어로 선택하는 구조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VP를 보어로 선택한다, 있을 수도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쫓아가란 말입니까? 지금은 small v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지금 small v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쫓아갈 수도 없어요. 지금 small v가 타동사가 가지고 있는 사동성, 행동주성 이런 것을 small v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동주성하고 행동주성이 목적어한테 대격을 줍니다. 이 small v가 목적어한테 대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목적어한테 대격을 주는 건 뭐냐 하면 타동사입니다. 타동사가 목적어한테 대격을 주는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small v가 목적어한테 대격을 준다고 하면 small v는 give에서 타동성을 분리한 것밖에는 안 됩니다. give에서 타동성을 분리해서 이긴 small v다, 그리고 나머지 give가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give는 자연어 동사 give에서 타동성을 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미가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타동사가 목적격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동사는 절대로 의미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르냐, 생성문법에 콩각지가 씌어서 그래요. 생성문법에 콩각지가 씌어서 대격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준다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대격은 절대로 동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타동사다 하고 태어난 놈들이 주는 것입니다. 가령, 무슨 give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성문법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길을 걷게 된 것은 바로 여깁니다. 여기서부터 ‘D-구조가  $\theta$ -구조다’라고 하는 것을 버리게 됐어요. 그게 D-구조가 의미구조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으니깐 D-구조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정을 했어요. D-구조가 없어졌죠?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작은 동사 small v가 VP를 보어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동사는 사실상 실제의 동사가 아닙니다. 실제의 동

사가 아닌 것이 VP를 어떻게 보어로 선택합니까? small v를 의미요소로 가정한다고 해도, 의미요소가 보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미요소 agentivity가 왜 보어를 필요로 합니까? 보어의 유형도 사전에 기술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동사가 어떤 보어를 요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가령 ‘marry’를 예를 들어 봅시다. ‘결혼하다’라고 하는 게, 한국 사람은 ‘누구와’ 결혼하고, 영미 사람은 ‘누구를’ 결혼해요, ‘marry’는 대격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하다’라는 의미가 대격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영어 사전에 가서 ‘아, 영어에서는 ‘marry’가 대격을 가지는구나’ 확인을 하고 대격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성문법을 떠나서 어디로 갈 거냐? 갈 데 없죠. 여태까지 해 온 게 촘스키를 쫓 따라온 것입니다만, 그냥 따라온 건 절대로 아니고, 〈생성문법의 한 문제〉에서부터 사실은 비판적으로 따라온 거죠. Radford의 *Transformational syntax*를 읽을 때에는, 참 잘 썼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감명을 받은 것은 진단법이에요. 카테고리하고, 그런 것의 진단법에 감동을 받은 거지, 다른 것은 별로 감동을 주는 게 없었어요. 생성이론을 그냥 가지고 와서 여기에 주격을 부여한다, 여기에 대격을 부여한다, 하는 것이 뭐 대단할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대답자:** 선생님, 그런데 비판적으로 따라오셨다고 해도 생성문법에서 어떤 희망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 따라오신 게 아닌지요. 만약 생성문법이 완전히 절망적이었다고 생각하셨으면 생성문법을 완전히 버리실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임흥빈:** 사실은 생성문법이 좋은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한국어를 생성문법에 의하여 설명한 사람들의 오류가 많이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촘스키식의 생성문법을 완전히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LFG나 HPSG 하는 사람들이죠. 촘스키 캠프가 엉뚱한 것을 믿고 있으면 너희들은 잘못된 것을 믿어라, 나는 다른 데 가서 하겠다는 것이 LFG, HPSG라고 볼 수 있습니다. HPSG나 LFG 하는 사람들은 촘스키 문법과 거의 아무 관계도 없어요, 지금 다 다른 거 해요. 그리고는 여기서는 설명하지 못할 것을 저들은 설명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LFG에서는 “Good Morning”을 설명

하라면 하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자기네들도 설명하기 어렵죠. 아주 간단한 것도 사실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꽤 있어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제 얘기에 나쁜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 말씀을 듣고 생성문법은 별 볼일이 없다, 우리 딴 데로 갑시다, 혹은 이론에 눈을 감읍시다,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눈에 안 띄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것이 안 잡히는 것입니다. ‘한국어에서는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그, 부정극어 문제가 있습니다. 부정극어는 ‘뭐 하지 않다’하고만 어울리는 그런 그 어휘요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간다” 이걸 안 되고 “아무도 가지 않는다”만 되죠. 그런데 ‘아무도’를 뭐가 허가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성문법에서는 계속 따져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를 뭐가 허가하느냐를 문제 삼는 것 그것은 생성문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현상이예요, 현상. 그런데 ‘아무도’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허가되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이론적인 것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것도 역시 생성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생성에 입각해 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영어 현상과 이론을 공부하면서 “아무도 보기 싫다” 이런 것을 발견해 낸 거예요. 아무도 보기 싫다. 이 문장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일동 웃음)

**대답자:** 좀 이상한데요. “아무도 보고 싶지 않다.” 이 문장은 몰라도요.

**임흥빈:** ‘않다’는 되죠. 그러니까 “아무도 오기 전에 떠나라”. 어때요? 괜찮아요. 영어에서 “아무도 오기 전에 떠나라”는 부정극어를 허용한다는 것이 논의된 뒤에 한국어에 “아무도 오기 전에”와 같은 문장을 설명하는 문제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외국 논문을 열심히 읽으면 첨단에서 그런 작업을 할 수는 있어요. 물론 한국어 논문을 열심히 찾아서도 그런 현상에 도달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잘 눈에 안 띄이죠. 또 영어 해석을 잘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 하지 않다’ 그러니까 ‘no more’, ‘no longer’ 이런 것이 ‘아니하다’하고 어울린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이런 게 생성문법은 아니죠. 이런 건 현상이예요. ‘no more’가 부정극어고, ‘no longer’도 부

정극이다, 이러한 사실들이 생성문법을 하는 이들 서클에서 찾아지는 거죠.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생성문법을 하는 게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생성문법을 죽을 때까지 했노라” 이것을 비석에 쓰고 싶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현상을 얼마만큼 찾아내서 어떻게 설명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나는 죽을 때까지 촘스키를 따라다녔노라” 이게 뭐 중요해요? (웃음) 그런데 후배들한테 말씀드릴 건 생성문법을 하는 영어학 학자들하고 교류를 너무 안 한다는 겁니다. 생성문법을 하는 모임에 한국어 학자는 저하고 몇 사람밖에 없어요. 제가 안 나가면 없어요. 다 영어학자들이예요. 이런 상태는 사실은 좋지 않아요. 왜냐면 영문과를 들어가는 사람들의 커트라인이 국문과를 들어가는 사람들의 커트라인보다 높거든요. 그걸 자기네들이 알고 있어요. “나는 너보다 커트라인이 높다” 이런 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책을 읽어도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읽지요. 그 사람들은 영어 논문만 읽어도 돼요. 그런데 국문과는 그렇지 않지요. 훨씬 더 다른 일들을 많이 해야 돼요. 영어학을 하는 사람들이 뿔뿔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영어학 합니까, 국어학 하지.” 그래요. 진짜로 옳은 말이에요. “저희들이 하는 게 다 국어학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국어학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리고 새로운 현상을 이상하게도 그쪽에서 발견하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전 세계 언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영어로 발표돼요. 그리고 “이것은 한국어에서 어떻게 되지?” 하는 의문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거를 한국어에다 적용시켜 보면 논문이 나와요. 하여튼 생성문법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생성문법을 쫓아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구문 현상이라든지 설명 방법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발견하기 위해서죠. 문제가 있으면 논문을 써야죠.

**대답자:** 형식주의와 기능주의 논쟁은…….

**임흥빈:** 이 질문이 중요해요?

**대답자:** 박진호 선생님께는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진호 선생이 질문 목록에 포함시킨 건데요, 지금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것에 어느 정도는 말씀하신 거 같아서…….

**임흥빈:** 기능주의는 아마 그 담화적인 그런 기능주의? 그것보다 조금 약화된 거예요?

**대답자:** 본인한테는 물어보지 않아 가지고…….

**임흥빈:** 형식주의는…….

**대답자:** 예를 들어서 전에 선생님이 박사논문 내신 뒤에 〈어학연구〉인가에 양동휘 선생님께서 기능적……인가요? 뭐 그런 제목으로 하신 걸 보면 넓은 의미의 기능주의인 것 같은데요. 담화만은 아닌 것 같고요.

**임흥빈:**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도 필요해요. 왜 필요하나 하면, 영어의 ‘결혼하다’는 대격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안 그렇습니다. ‘싸우다’는 한국어에서 대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대격도 요구하고 ‘with’도 돼요. ‘fight with him’도 되고 ‘fight him’도 되고요. 뜻이 같은지 어떤지 확실치 않습니다만, 이것은 실제로 형식주의가 포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능주의는 일종의 설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주의는 생성을 하는 데 편리할 거예요. 생성문법이 형식문법 formal syntax이라고 하는데, Kuno적인 Syntax가 functional syntax죠. 그런데 functional syntax이라고 하면 syntactic construction에 대한 semantics예요. 실제로는 semantics가 어떠할 때 이런 변형이 일어난다, 그렇게 설명하면 통사론하고 관련이 되지만 변형을 떠나서 의미에 의해서 접근을 한다면 똑같은 의미일 때 어떤 때는 재귀사가 안 쓰이는데 다른 때에는 또 왜 쓰이느냐 하는 문제에 부딪혀요. “철수는 영희가 그를 비판할 때 침묵했다”에서 ‘그’가 철수를 가리킬 수 있죠. “철수는 영희가 자기를 비판할 때 침묵했다”고 했을 때 ‘자기’도 철수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형식주의라고 하면 이런 관계가 있을 때 항상 재귀사가 쓰인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그’가 쓰일 때하고 ‘자기’가 쓰일 때하고 의미가 다르다고 하면 기능주의적인 게 괜찮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기능주의를 모든 것에 다 뿌려놓으면 무정부 상태가 되고 객관적인 증거가 별로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이기설(理氣說)하고도 비슷해요. 형식주의는 ‘이(理)’가 우선한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고 기능주의는 기일원론(氣一元論)적인 접근 방식하고도 비슷해요. ‘기(氣)’만 있다. ‘기(氣)’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법칙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말이죠. 그런데 뭐가 역사적으로 더 오래 살아남았느냐 하면 이기철이 더 오래 살아남았거든요. 왜냐면 객관적인 법칙이 있다고 믿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는 거죠. 객관적인 법칙이 없이 그냥 뭐 두루뭇수리한 힘이 있다, 두루뭇수리한 기운이 있다 하면 객관적으로 적용할 방법이 없는 거죠. 우주는 내가 보는 데 따라서 바뀐다, ‘우주 즉 오심(宇宙卽吾心)’, 우주는 즉 내 마음이라는 것이 기능주의적 접근입니다. 반면, 우주에는 일정한 질서가 있다, 객관적인 법칙이 있다, 그럼 그게 형식주의입니다. 그런데, 형식만 따로 존재한다, 혹은 형식이 기능과 독립하여 따로 존재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형식주의라고 하면 사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성립할 수도 없어요. 내용이 없으니까.

#### \*표층 중심 문법

**대답자:** 1998년부터 21세기 세종계획에 계속 참여를 해 오셨잖아요. 어절 분석 표지 표준안 마련하는 데 참여하셨고, 구문 분석 표지 표준안 마련하고 구문 분석 방법론 고안도 하셨구요. 이런 게 선생님 연구에, 한국어 구문 분석 원리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궁금하고요, 연어에도 또 관심을 가지셨는데 이것도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분과에서 작업하신 것하고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흥빈:** 예. 표면 구조 문법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이 구문 분석 표지 연구를 할 때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면 중간 투사론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생각은 그 명사구 있잖아요, 명사구와 조사구의……그게 언제 논문?

**대답자:** 1999년 논문…….

**임흥빈:** 1999년 논문이죠. 그때 분명하게 된 거고, 그것을 문광부 과제에 적용을 한 것이 구문 분석 표지예요. 구문 분석 표지 권장안이죠. 그때에 권장안이라고 한 건 실질적으로 구문 분석 표지가 쓰일 것으로는 기대를 별로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이런 정도의 표지가 설정 가능하다 그런 정도였었죠. 그러니까 그 표면 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문법에 대한 생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게 된 거는 세종 계획을 하면서예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는 그 전에도 있었는데 논문을

쓰면서 아이디어를 거기다가 적용한 거죠. 세종 계획 자체가 없었으면은 그렇게 선언을 하지는 아마 않았을 거예요. 그 표면 구조 통사론이 통사론 연구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그런 거예요. 도출주의보다는 주어진 구조를 있는 그대로 분석한다, 그런 주의거든요. 주어진 구조를 분석하다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충한다는 거예요.

**대답자:** 보충은 도출을 참조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임흥빈:** 그런 건 아니예요. 가령 논문 제목이 있고 부제가 있을 때 ‘15세기 중세국어’를 중심으로’ 이런 부제가 있어요. 거기서 뭐가 문제가요? ‘15세기 중세국어’를 뭐가 선택해요? ‘15세기 중세국어’를 중심으로’에서 ‘를’을 선택하는 게 뭐예요? ‘하’를 보충하지 않으면 설명될 수 없어요. 도출주의는 ‘15세기 중세국어’를 중심으로 하’ 이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하’를 지운단 말이에요. 이걸 도출이에요. 하지만 ‘15세기 중세국어’를 중심으로’인데 ‘를’이 설명되지 않는다, 이 구조에서는 ‘를’이 설명되지 않으니까 ‘하’를 보충한다, 그런 거예요. ‘하’를 보충한다, 거기까지예요. ‘-하’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왜 ‘-하’까지를 안 하느냐 하면은 ‘중심으로’가 부사적이잖아요. ‘하’도 부사적이예요. 왜 ‘중심으로’로 끝날 수 있느냐 하면은 이게 부사적이기 때문에 끝날 수 있는 게 아닌지요. 그건 이미 가설이죠. 설명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연어에 대한 관심은 세종 계획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세종 계획에서 연어에 대한 기술을 하라, 연어를 내가 맡아서 사전을 만들어 줬음 좋겠다 그랬기 때문에 연어를 하기 시작했고, 그 뒤에 연어의 문제가 심각하다, 연어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한 것은……. 구조주의 이후에 통사적인 구조에서 관심을 가져온 거는 paradigmatic relation이에요. Paradigmatic relation이 수직적인 관계죠? paradigmatic relation이 체계를 형성하잖아요. 그리고 syntagmatic relation을 우습게 안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가 영화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철수’는 뭐뭐뭐하고 대치될 수 있다. 그러니까 substitutional relation이구요, 대치의 관계. ‘영화를 좋아한다.’ ‘영회를’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다른 무엇이 다 대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좋아한다.’ 뭐 해서 그게 NP가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좋아한다’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다 뭐다. 이게 다 paradigmatic relation 인데 뭐가 거의 도외시됐느냐 하면은 ‘철수가 영화를 좋아한다.’는 수평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 관한 것이 생성문법도 지금 거의 잘 돌보지 않는 거죠. ‘좋아하다’의 관계가 주어하고 목적어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거죠. 주어하고 목적어를 갖는 거. 지금 생성문법이 가진 결함도 동사가 주어하고 목적어를 거느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성문법은 동사가 주어 목적어를 거느리는 게 아니라 INFL이 주어를 거느린다고 해요. INFL 혹은 agreement예요. agree라고 하는 요소가 주어를 거느려요. 주어한테 격을 부여하는 것, 격을 점검하는 것도 I였어요. I 혹은 T가 주어를 관장해요. 그리고 목적어를 관장하는 거는 동사예요. 따라서 생성문법은 뭘 우습게 아느냐, 논항구조를 우습게 아는 거죠. 논항구조는 가령 ‘좋아하다’와 같으면 주어, 목적어가 논항이에요. 그리고 주어, 목적어를 뭐가 지배하느냐, 동사가 지배해요. 틀림이 없어요. 주어, 목적어를 동사가 지배해요. 그러니까 주격을 주는 것도 동사고 목적격을 주는 것도 동사여야만 돼요. 그런데 생성문법은 주격을 주는 것은 T나 혹은 I이고 목적격을 주는 거는 타동사이고 그래요. 그러면서 전혀 의심도 하지 않아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weather 동사는 주어가 ‘it’여야 한다는 것을 지정해요. ‘It rains.’ 하면은 ‘rains’는 주어하고 관계도 없고 거기에 T가 주어하고 관계있어요. 그런데 T가 주어하고 관계되는데 T가 모든 동사에 다 있는 거예요? infinitive가 아니면 시제절의 동사는 전부 T를 가지고 있고 그 T가 주어를 선택하고 주어에 격을 부여해요. 그런데 주어를 T가 그걸 어떻게 ‘it’가 되도록 해요? 시제가 어떻게 ‘it’가 되도록 해요? ‘rain’이 ‘it’가 되도록 한단 말예요. ‘rain’이 ‘it’가 되도록 해요. 이것은 아주 문법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랑한다’는 사람이예요, 주어가. ‘사랑한다’의 주어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주어는 T가 관장한다고 하면 사람이라는 정보를 어떻게 할 거예요. 하위 정보, 하위 범주화를 동사가 목적어만 가지고 하게 된다면은 주어를 파악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50년이나 됐어요. 57년에 생성문법이 나와 가지고 지금이 2009년인데 52년이나 됐어요. 52년이나 된 생성문법이 주어를 포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어는 T나 INFL에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주어하고 제일 중요하게 관련되는 거는 동사에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동사에. 그리고 나머지 문법적인 몇 가지 부수적인 것이 동사가 아니라 시제하고 관련된다, 그러면 그건 또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관심은 세중 계획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이것이 수직적인 관계를 중시한 structuralism이죠. structuralism 혹은 생성문법도 수직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거죠, 수평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관심은 selection restriction이잖아요. Selection restriction이 혹은 subcategorization이 syntactic relation인데, 별로 그런 걸 본 일이 없을 거예요, 아따. 생성문법을 보시면서 selection restriction이 어떨다, 이게 중요하다, 얘기하는 것을 별로 보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기본이죠. 아주 자명하고 쉬워서 쉽게 넘어갔는지는 몰라도 이게 기본이니까. 생성문법이 이제까지 해 온 건 제가 하고자 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동사는 주어하고 모든 논항을 다 거느리는 것이 제가 하고자 하는 거고, 생성문법은 주어가 관계되는 부분이 따로 있고, 목적어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또 따로 있고, 또 전치사구는 전치사하고 관련되고 그래요. 너무 부분적으로 쪼개져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됐는지는 몰라도 핵심은 지적한 셈이죠?

**대답자:** 이 질문은 좀 지엽적인 것이긴 한데, 구문 분석 방법론을 고안하실 때 표층에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공범주를 따로 설정하지 않으셨잖아요. 이전에 1985년 “통사적인 공범주”에서 말씀하셨던 공범주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생각들이 해석 단계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그걸 궁금합니다.

**임흥빈:** 공범주를 찾아내는 거는 이미 해석의 단계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선은 나타난 요소만 가지고 분석한다. 이게 통사론의 제1차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 분석을 하고, 어느 놈이 안 나타났느냐 그거를 이미 검토하려고 할 때는 기계적인 작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통사론은 약간 기계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요소가 안 나타났느냐 하는 것의 자리를 찾아서 거기에 e라고 하는 것을 주는 거는 이미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든지 하여튼 표시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나타나 있지 않은 요소죠. 무엇이든지 공범주를 뭐라고 표시를 하면은 그건 이미 나타나 있지 않은 요소니까 나타나 있지 않은 요소는 해석에 의해서 있는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의 입장이 좀 더 분명해졌다고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하는 그런 통사 분석은 그렇게 섬세한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구문 분석 방법론은 약간 좀 기계적인 처리를 관심에 둔 거거든요. 컴퓨터가 가령 ‘철수가 생각한다.’ 이런 문장을 분석했을 때 목적어가 비어 있다고 판단하려면 굉장한 사고가 필요하거든요. 컴퓨터는 별로 못 한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철수가 생각한다.’ 이게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철수는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철수는 생각한다.’ 그런 문장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나타난 요소를 그냥 그대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의미론적인 해석 혹은 상황적인 요소에 대한 해석에 의해서 여기는 목적어가 비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조금 더 해석이 가미된 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문 분석 표지는 사실은 e까지 찾아내라는 건 아니거든요.

**대답자:** 선생님께서 표면 중심 통사론을 추구하고 계시는 데에 대하여 양정석 선생이나 목정수 선생처럼 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위치에 ‘∅’를 설정해서 다른 조사들과 계열관계로 볼 가능성을 제시한다면 어떠한 반론을 해주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임흥빈:** 양정석 선생과 목정수 선생의 이야기죠? 즉 ‘철수는’과 같은 성분에는 ‘이’가 있다 하는 주장인 것이죠? 제로(∅)의 ‘이’가 있다는 주장은 ‘철수는 영화를 좋아한다.’의 경우에 ‘철수는’의 ‘는’ 앞에 ∅의 ‘이’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럴 경우에 ‘철수는 동생이 영화를 좋아한다.’ 이런 예를 설명할 수 없는 거죠. ∅는 가능하면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철수가 왔다.’와 같은 예에서 역시 ∅의 ‘는’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동생이 왔다.’와 같은 예에서 ‘동생이’가 주어고 ‘철수는’은 ‘는’을 가진 것인데, 여기다가 다시 ‘이’를 가졌는지 보장할 수 없죠. 가능하면 ∅를 가정하지 말자는 것이죠. ∅를 어미에 대해서도 가정하

면, Ø 자리가 수도 없이 많아지죠. 어미 자리에 Ø를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하엿엿엿엿엿사옵나이다, 하엿엿엿엿사옵나이다, 하엿엿엿엿엿사옵나이다’ 등의 예가 성립하죠? 또 ‘먹엿엿엿었다, 먹엿엿엿었다, 먹엿엿엿었다’ 등의 예가 괜찮죠? 매우 규칙적이죠? ‘졌엿엿엿’밖에는 되풀이 안 되죠. 다른 건 되풀이가 안 되죠. ‘-느’라든지 ‘-더’라든지를 생각해 보면 ‘먹엿졌더엇더졌더다’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자리가 Ø1, Ø2, Ø3, Ø4, Ø5 이런 건가요? 빈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저런 딜레마에 빠지죠. 그렇게 가정했을 때, 다른 예로 ‘이올어늘’의 ‘거늘’이 과거가 있다고 가정해야 하는 자리가 있어요. Ø의 과거가 있다고 하면 ㄱ목음화가 설명이 안 돼요. 음운론적으로 ‘ㄱ’ 뒤에서 ‘ㄱ’이 떨어지는 것이지 Ø의 과거 형태 뒤에서 ‘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Ø의 과거 형태는 무시된다고 해야 하죠. 그러나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다가 과거의 ‘-엿’을 가정하고 그것을 무시하느냐, 원래 없다고 보고 ‘ㄱ’ 바로 뒤에서 ‘ㄱ’이 목음화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구체적이죠. 따라서 거기에 Ø가 있다는 흔적이나 근거는 없는 것이죠. Ø 대신에 ‘-엿’을 가정한다. 그것은 이미 통사론이 아니라 의미론이에요. 없는 ‘-엿’을 가정하니까 의미론인데, 생성의 입장에서는 통사론이에요. ‘-엿’을 놓았다가 지워야 되니까요. 기저 구조에 ‘-엿’을 놓았다가 지워야 해요. 그러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영희가 가고 철수가 오더라.’의 예문에서도 나타나요. ‘가’ 뒤에 ‘-더’를 가정해야 해요. ‘-더’가 있다고 가정하면 생기는 문제는 ‘영희가 가더고 철수가 오더라.’가 성립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에요. ‘가더고’는 안 되기 때문에 ‘가더고’를 만들어 놓고 ‘-더’를 지울 것인가, 거기에 Ø의 ‘-더’가 있다고 볼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죠? 이것은 통사적으로는 성립 안 되고 거기에 ‘-다’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미 의미론적 해석이죠. 양정석 선생이나 목정수 선생의 ‘느’ 앞에 Ø의 ‘이’를 가정하는 견해는 우선 ‘철수는 동생이 왔다.’를 잘 설명한 후에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 \*논항, 어휘부, 논항구조

**대답자:** 논항 구조와 어휘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기존의 생성문법이나 표층 중심 문법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시면서 그 성격이 전반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사 중심의 문법관에서 동사가 논항을 취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구조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는 차원이고,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구조의 구체적인 모습이나, 구조와 어휘부의 관계가 어떻게 상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배경적 차원에서 어떠한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이러한 논의를 하시게 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빈:** 논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리무중이잖아요. 시정곤, 고창수 선생이 편찬한 책 중에 『논항이란 무엇인가』라는 저서가 있는데, 사실 그 책의 결론은 논항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논항 이야기가 얼마나 오리무중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동사가 요구하는 주어,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 보어 이런 것이 논항이라고 이야기하면 간명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책의 결론이 확실하지 않은 이유는 논항이 어디에서부터인가 온다고, 어디에서부터인가 만들어져 온다고 가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derivation, 즉 논항이 어디서부터 도출되어 온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것이지요. ‘The train arrived at the station at 7 o'clock.’과 같은 예에서 ‘the train’이 논항이고, ‘at seven o'clock’도 보충적 논항이고, ‘arrive at the station’의 ‘at the station’은 논항이잖아요. 꼭 있어야지요. 있어야 되느냐 없어도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다 논항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면 다른 문제는 없어져요. 그런데 ‘the train’이 ‘arrive’의 목적어 자리에 있었는데 주어 자리로 온 것이라고 본다면 논항은 어디 있어야 하지요? 확실치 않아요. 이 책을 기획한 사람들이 고대에서는 총명한 엘리트 통사론자들이죠? 논항이라는 용어를 열심히 사용해 왔고, 논항에 대한 책이나 논문도 많이 있는데도 논항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결론을 내었어요. 제일 쉬운 것이 아닌가요? ‘철수가 영희를 좋아한다.’에서 ‘철수가’와 ‘영희를’이 논항인 것이죠. 도대체 모를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give’ 이야기를 했는데, ‘John’이 있

고 ‘Mary’가 있고 ‘a gift’가 있고 ‘give’가 있어요. 논향이 뭐예요? 몰라요. ‘John’은 v(스물 브이)의 논향이라고 보는데, v는 없는 거예요. 있다고 보면 큰일이에요. 없는 것이 무슨 논향을 가져요. 그러니까 도출주의가 논향을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휘적 속성, 논향은 어휘적인 속성이 지니는 그 성분들이에요. 확대하면 어휘적 속성에 의해서 상정되는 성분들 이게 논향인데, 어휘적 속성을 추상화시켜서 찢어발기고, 어휘 해체를 해서 의미론적 요소로 몇 가지 나누어 놓고 논향이 뭐냐 하니까, 다시 말하면 어휘적 속성을 중시하지 않으니까 논향이라고 따질 것이 없는 것이예요. 그리고 촘스키가 어휘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촘스키에서는 뭐냐 하면 그 특이성, idiosyncratic한 요소를 모아 놓은 것이 어휘부예요. 예측되지 않는 것, 아주 불규칙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 어휘부예요. 그런데 규칙적인 것도 있어야지만 불규칙적인 것도 기술할 수 있어요. 규칙적인 것을 기술하지 않고 불규칙적인 것을 어떻게 기술해요? 영어의 과거형은 지금 [ed]를 붙이는 것이 규칙적이잖아요. [ed]를 붙이는 것이 있고, [t]를 쓰는 것도 있고, 불규칙적인 모음 교체를 보이는 것이 있다 이래야지만 과거형이 제대로 기술될 수 있지, [ed]를 빼먹고, 그 다음에 ‘sleep’는 ‘slept’가 과거고, ‘buy’는 ‘bought’가 과거다. 그것만 기술해 놓으면 과거가 무엇인지 모르죠. 규칙적인 것도 어휘부에 있어야 하고 불규칙적인 것도 물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촘스키의 생각은 불규칙적인 것만 어휘부에 모아 놓았어요. 그러니까 어휘부는 불규칙적인 것의 집합, 불규칙적인 것을 모아놓은 덩어리예요. 그것을 갖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ed]를 통사론이 주관하는 것으로 생각했죠. 과거를 통사론적 소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규칙적인 것이니까요. 촘스키는 규칙적인 것은 통사론이 다루고, 불규칙적인 것은 어휘부가 다룬다고 생각한 것이예요. 그러니 어휘부는 아무것도 아니고 필요도 없죠. 불규칙한 것은 안 다루면 그만이죠. 불규칙적인 것은 도외시키고 규칙적인 것만 통사론에서 다룬다. 그러므로 규칙적인 [ed]는 통사론에서 다룬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과거(past)를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룰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ed]를 가지고 와야 하잖아요. 과거는 ‘past’다 하고 그만 둔 거예요. 그런데 ‘past’는 의미예요. 어휘적 실체가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적어도 [ed]까지 가야 어휘적인 실체가 도입된 것이고, 한국어에서는 ‘-었.’이 도입되어야지만 과거예요.

어휘부와 논항 구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Larson의 논문을 다루면서부터입니다. 1999년에 「국어의 여·대격 구성에 대하여」(1999)라는 논문에서는 재분석(reanalysis)적 견해를 제시했고, 이것을 쓴 후에 금방 견해를 수정한 논문이 「국어 명사구와 조사구의 통사 구조에 대하여」(1999)입니다. 질문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라는 항목도 있나요? 한국어에 대해서죠? 동사가 ‘주다’라면 ‘누구에게’를 TKP라 하고, ‘무엇을’을 AKP라 하고, ‘누가’를 NKP라 했죠. 각각 달격/여격 조사구, 대격 조사구, 주격 조사구라고 한 거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고 하면 아주 쉽잖아요. ‘주다’라는 동사가 세 개의 논항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층위를 지닌다고 본 것이죠. 찹스키는 중간 층위를 하나로만 한정한다고 하는데, 이는 바의 수를 늘리는 것이 무서워서였습니다. 하긴 예전에는 근거 없이 바의 수를 여섯 개까지 얹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정했을까요? 외적으로 보기에는 이것이야말로 어글리한 문법이잖아요. 아래아 한글 가지고 조판도 안 되잖아요. ‘어디 가서 바를 그어 주세요’ 하면 될까요? 그런데 사실 옆에다가 하면 되잖아요. 바(B)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세 개의 B인데, 맨 상위 교점인 VBBB는 VP이고, 중간 투사가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B)을 하나만 하자고 한 것이죠. Larson의 논문에는 모든 동사가 중간 투사를 하나만 갖지요.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자동사를 보세요.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요. B가 필요 없어요. 주어와 동사가 있지만 중간 층위가 없는 것이에요. Larson의 single complement hypothesis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단일 보충어 가설’이지요. 주어가 하나이니까 보충어도 하나로 보자는 견해이지요. 그래야 대칭적(symmetric)이잖아요. 이것을 그럴 듯하다고 여긴 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아직도 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찹스키가 *v*로 목적어 하나 동사인 구문을 다루었지, ‘give’ 동사를 다룬 것은 아니에요. 이 동사는 여전히 그 전의 상태예요. 이러한 견해는 타동사를 다루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단일 보충어 가설을 벗어난다면 ‘주다’가 ‘무엇을 주다’로 통합해서 VB(브이 바)가 되고, 거기에 ‘누구에게’를 합해서

VBB가 되고, 주어인 ‘누가’가 합해서 VP가 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 이외에 무엇을 더 다룰 필요가 있을까요? 영어를 더 다룰 필요가 있죠. 가령 ‘He goes to school.’의 ‘-es’가 무엇을 나타내지요? 단수, 현재, 3인칭, 직설법. 그렇죠. 그런데 생성문법 학자들은 직설법 이야기조차 하지 않죠. 직설법일 때만 ‘es’가 붙죠. 따져 보자면 ‘he’는 [+단수], [+3인칭]이라는 두 가지 사항과만 관계가 있죠. 그러므로 ‘he’와 ‘-es’의 관계는 이 두 가지 공통적인 자질들만을 지니는 관계라는 것이죠. ‘-es’가 온전히 ‘he’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지금 상태로는 저들은 이것도 기술하지 않고 있죠. 57년 동안 그런 것조차 기술이 안 되고 있어요. 직설법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기술해 본 적조차 없죠. 주어가 이러한 자질을 지니고 있으면 동사도 이러한 자질을 지닌다고 보는 것이 제일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생성문법 학자들은 T(tense)가 비해석적 자질(uninterpretable feature)로서의 3인칭 단수 자질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시제가 무슨 3인칭 단수 자질을 가지고 있겠어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자연스러우려면 일치(AGR)가 가지고 있어야죠. 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를 지니고 있어야지요. 생성문법 학자들이 언어학을 어떻게 호도할지 우려되는 점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순전히 도출(derivation)을 하기 위해서 상정하는 거예요. 비가시적이고 비해석적 자질이므로 없애야 하고 그러한 맥락에서 ‘he’가 구조상 저 멀리 있으니 가까이 가져와서 없애야 해요. T가 가지고 있는 자질들을 ‘he’가 이동해 와서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성분들이 무엇인가 자신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동을 했죠. 가령 격을 받기 위해서라든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성분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자살적 이타주의랄까요? 자신이 죽어서 ‘he’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기성(greed)의 원칙상 이득이 있어야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작은 전부 자연성을 상실한 거예요. 아울러 일치 개념을 도입한 Pollock이라는 프랑스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작을 하는 것입니다. AGR이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없앤다고 주장하는데 왜 아무런 작용을 안 해요? 의미론적으로 주어가 3인칭임을 보여주는 것이 AGR인데 그것이 무의미하다면 언어학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었어

요? 삼인칭? 단수? 모두 중요하죠. 또한 ‘his daughters’의 핵은 무엇일까요? DP 가설에 의하면 D가 ‘his’예요. ‘daughters’가 NP가 되고 이 둘이 합쳐져서 DP가 됩니다. 그런데 후행하는 ‘are’는 핵과 일치되어야 해요. DP의 견해를 수용하면 ‘his’와 일치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둘은 일치할 수도 없거니와 ‘his daughters’의 수(Number)를 결정하는 것은 ‘daughters’예요. 1987년의 Abney의 논의에서 NP가 DP가 된 것인데, NP나 DP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이 생성문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요즘은 NP를 언급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학자로 보고, DP를 언급해야만 산뜻한 언어학을 한다고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은 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죠.

#### \*형태 분석 혹은 통사론의 성격

**대답자:** 임흥빈(1989)에서는 ‘통사적 파생’ 혹은 ‘통사적 파생접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태적 파생’ 내지 ‘형태적 파생 접미사’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통사적 파생’에서 ‘파생’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요? 임흥빈(1989)에서는 ‘통사적 파생접사’에 궁극적으로 조사, 선어말어미, 어말어미까지를 포함시키고 있어 이때의 ‘파생’이 ‘굴절’의 반대 개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syntactic affixation 정도로 이해하여도 될는지요?

**임흥빈:** 통사적 파생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그 논문에서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형태론적인 접사가 syntactic construction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그 전까지는 잘 인식이 안 됐어요. ‘-짜리, -어치’를 예로 들면 ‘백 원짜리’에서 ‘-짜리’가 형태론적인 접사라면 형태소에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원’에 붙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짜리’는 ‘원’에 붙은 게 아니라 ‘백 원’에 붙은 거죠. ‘백 원’은 syntactic construction이죠. 즉 형태론적인 접사가 통사적 구성에 붙어 있다는 사실에 중심을 뒀던 것입니다. ‘-어치’도 ‘값어치’라고 할 땐 형태론적인 접사지만 ‘백 원어치’라고 했을 때는 ‘원’에 붙은 거는 아니죠. ‘원어치’라는 단어가 다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백 원’ 뒤에 어치가 붙은 겁니다. 이게 접사라면 통사적 구성에 붙은 것이기 때문에 통사적 파생이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짜리’와 ‘-어치’를 명사로



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특별한 처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때까지 해 왔던 범주 분석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은 것이죠. 조사나 어미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있었던 생각은 ‘철수를’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굴절’이나 ‘곡용’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음운론에서 많이 쓰는데 개념 자체는 ‘철수를’이 하나의 단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syntactic construction이 굴절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철수를”에서 ‘를’은 ‘내가 좋아하는 철수’ 뒤에 붙은 거라는 걸 강조하려고 했던 거죠. 이것을 syntactic affixation이라고 부르겠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는 head가 이쪽(‘를’)이다 하는 암시가 들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요점은 어말어미, 선어말어미도 통사적 구성 뒤에 붙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갔다’에서 inflection이 뭔지도 몰랐던 거죠. ‘가-’가 inflection을 하는 건지 ‘갔-’이 inflection을 하는 건지도 확실치 않았습니다. ‘갔-’은 restructured stem, 재구조화된 어간입니다. 여기에 ‘-다, -고, -게’ 이런 것이 붙는 겁니다. 가령 ‘간다’에서 ‘간-’은 재구조화된 stem이 아니에요. “\*간고, \*간게” 이게 안 되죠. ‘갔-’은 재구조화된 stem이 되어 ‘갔고, 갔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재구조화된 stem이라고 보지 않으면 한국어의 굴절이 일목요연하게 기술이 안 돼요. ‘-아/어, -게, -지, -고’ 이런 것들을 활용어미라고 하면 ‘가겠고’, ‘갔었고’, ‘갔었었고’는 재구조화된 어간 뒤에 활용어미가 붙은 것이다 하면 간단하지요. ‘갔었고’도 활용이고 ‘갔고’도 활용이고 ‘갔었겠고’도 활용이라고 하면은, 지금 학생들은 뒤죽박죽이지요. 활용이 뭔지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가 붙는 것이 활용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선어말어미가 붙어서 재구조화된 어간이 되고 다시 거기에 ‘-아/어, -게, -지, -고’가 붙는 거예요. 따라서 조사, 선어말어미, 어미가 단어에 연결된 것이 아니고 통사적 구성에 연결된 것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걸 영어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영어는 “He goes to school.”에서 ‘-es’가 문장 전체에 붙었다고 말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es’가 문장 전체에 붙었다고 하면서도 이걸 절대로 혼자 있어서는 안 되고 동사를 찾아가든지 동사가 오든지 같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Eine Kleine Nachtmusik’와 같은 구성 전체가 주격이라면 단어 하나 하나가 모두 주격을 가지고 있

어야죠. 모든 요소가 다 주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즉 단어가 격을 받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국어는 단어가 격을 받는 게 아니고 명사구가 격을 받습니다. ‘-었-’이 동사에 연결되는 게 아니고 동사구에 연결됩니다. ‘주었-’에서 ‘주-’에 ‘-었-’이 연결된 것이 아니라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을 주-”에 ‘-었-’이 연결된 겁니다. 절대로 구성 요소 하나하나에 분배되지 않지요. 하지만 인구어에는 하나하나에 분배됩니다. Inflection은 ‘word’의 morphology지 ‘syntactic construction’의 morphology는 아닙니다.

**대답자:** 선생님의 선어말어미 연구에서는 같은 형식은 하나의 논리(의미)로 설명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연구 태도라는 입장을 견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시적 변화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태도가 기술에서의 무리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원칙이 고수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관형사절의 ‘-다-’와 종결형의 ‘-더-’에 대한 기술이나 ‘-오-’에 대한 기술을 예로 들면 말입니다.

**임흥빈:** 관형사형 어미의 ‘-다-’와 종결형의 ‘-더-’가 왜 달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여기서 보시면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을 주던 시절”에서 ‘-다-’는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을 주-’에 붙어 있죠.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을 주더라.”에서도 ‘-다-’는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을 주-’에 붙어 있죠.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을 주다-’라고 하는 것은 관형사형이든 종결형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관형사형의 ‘-다-’와 평서서술형의 ‘-더-’가 왜 달라야 하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의 논리가 이 바깥에 있느냐, ‘-다-’는 여기에 걸려 있는데, 이 속에 있는데 왜 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이게 상보적 분포라고 하니까 상보적 분포라니 무슨 18세기 얘기를 하시느냐 그래요. 관형사형에서는 ‘-다-’가 일인칭에 아무 제약이 없고 “내가 책을 보더라.” 하면 잘 성립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일인칭 제약의 있고 없고가 이렇게 된다면 관형절에서는 언제나 ‘기능2’이고 평서형에서는 언제나 ‘기능1’이 되는 것입니다. 상보적 분포는 뭘 뜻합니까? 이건 상보적 분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상보적 분포는 그 기능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해 주는 것이 없다고도 합디다만 정말 그래요? 상보적 분포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이는 같은 요소인지도 모른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

고 기능1과 기능2가 정말 다르면 어떻게 돼야 하나면 사전에서 ‘-더1-’과 ‘-더2-’로 따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형태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왜 다르다고 합니까? 다르면 형태소가 다른 거죠. 그러면 뭐가 성립해야 되느냐 하면 ‘-더1더2라’가 돼야 합니다. 다른 형태소라면 되어야죠. 그러나 ‘-더더라’가 쓰이는 일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도 그래요. 허웅 선생의 주장에 의하면 관계절에서는 대상 활용이고 평서형에서는 일인칭 어미라는 것입니다. 일인칭 어미라는 게 한국어에 설정된다는 건 우스운 일입니다. “He goes home.”에서 ‘goes’의 ‘-es’가 인칭 어미죠. 그런데 한국어에 무슨 인칭 어미가 있습니까? “내 호라”에서 ‘-오-’가 인칭 어미면 ‘-더라’는 2, 3인칭 어미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1인칭에 대해서 ‘-더-’가 안 쓰이고 2, 3인칭에 대해서 ‘-더-’가 잘 쓰이니깐요. 대상 활용은 관계 명사가 관형절 내부의 목적으로 해석될 때 ‘-오/우-’가 나타난다는 것인데 “그가 혼 일”의 ‘혼’에 쓰인 ‘-오-’가 대상 활용이라는 거죠? 평서형에서는 인칭 활용이고, 관형사절에서는 대상 활용을 하는 것이라면 기능상의 공통점이 없습니다. 이 정도 다르다고 하면 형태소를 둘로 설정해야 합니다. 잘 보면 관형사절에서는 대상 활용의 ‘-오/우-’가 나타나고 평서형에서는 인칭 활용의 ‘오/우’가 나타납니다. 현상 자체는 ‘-더-’의 경우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인칭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입니다. 동일한 형태소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실현된 것이니만큼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능이 인칭 대상 활용과 같이 이질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상보적 분포라는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언어학에서 말하는 바가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어에서 /t/라고 하는 음소를 정할 때 [t]와 [d]는 상보적 분포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음소로 묶이는 것입니다. 상보적 분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이 둘이 어떻게 하나의 음소로 묶일 수 있겠습니까? 대상 활용과 인칭 활용은 기능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데, 형태소를 분리하지 않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상보적 분포는 어떤 한계 내에서 분명히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절의 ‘-오/우-’와 서술형의 ‘-오/우-’는 같은 ‘-오/우-’다. 그런데 같은 형태소가 어떤 것은 인칭 활용을 하고, 어떤 것은 대

상 활용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허웅 선생은 가령 ‘그가 혼 일’에서 ‘일’이 ‘ㅎ-’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오/우-’가 나타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일’은 사실은 관계절 내부의 성분과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지, 실제로 그것이 관계절 안의 성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위절 성분입니다. ‘그가 호-’까지가 내포절 성분입니다. 관형사형 어미도 내포절 성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읽은 책’이라고 할 때, 서술어하고 그에 딸린 논항이 내포절의 성분이고 ‘책’은 다른 문장의 요소입니다. “그가 내가 본 책을 보았다”를 봅시다. ‘책’은 ‘보았다’의 목적어입니다. 관형절 속의 목적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어일 때 관형절 속에 ‘-오-’가 나타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관형절의 목적어는 모문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모문에서 잠시 빌려가지고 있는 거죠. 관계절 내부에도 주어가 1인칭일 때 1인칭 활용의 ‘-오/우-’가 나타나야 됩니다. 분명히 나타나야죠. 그래야 그것이 1인칭 활용 어미에 합당한 것입니다. 관계절의 주어가 1인칭일 때 1인칭 어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1인칭 활용어미가 아닙니다. 코퍼스를 찾아보면 1인칭이 아닐 때도 ‘-오/우-’가 나타나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1인칭 활용어미설은 그걸 예외로 하고 성립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답자:** 제일 궁금한 거는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통사론이 궁금합니다. 거기에서 의미가 어디까지 포함이 되는지 그게 사실은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임흥빈:** 어휘부 정보를 중시할 때, 통사론의 역할은 사실은 굉장히 축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휘부가 있고, 어휘부에 주어진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휘부에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 어휘부에 주어진 정보가 있고 또 주어지지 않은 정보가 있습니다. 부가어 이런 거는 어휘부에 주어지지 않잖아요. 주제도 어휘부에 주어지지 않아요. 논항 구조만 어휘부에 주어진다고 하면, ‘좋아하다’의 경우 그 주어와 목적어가 어휘부에 주어집니다. 그럼 주제는 어디 있습니까? 어휘부에 주제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주의에 사로잡힐 가능성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게 주제다’ 그러면 ‘그것은 주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반론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주제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여태까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해 온 것 같은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주제는 그 문장이 무엇에 대해서 말한 것이잖아요. 그 문장이 무엇에 대해서 말한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가령 ‘철수가 영화를 좋아한다’에서 주제가 뭐예요? 질문 자체가 다소 황당한 느낌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 문장에 대하여 그런 질문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제를 연구하는 사람들만 이 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문장이 그것에 대하여 말한 것이 주제이니까 이 문장에도 주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생각을 바꾸어서 ‘철수가 영화를 좋아한다’가 신종 플루에 대해서 얘기한 거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은 아니죠. 그런데 신종 플루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죠. 영화가 신종 플루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화가 신종 플루에 걸렸는데 ‘철수가 영화를 좋아한다’고 하면, 이 문장에서 화자가 의도하는 것이 ‘신종 플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철수가 영화를 좋아한다’가 책상에 대해서 얘기한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흔히 책상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철수가 영화를 좋아한다’가 벽돌에 대해서 얘기한 거냐? 흔히 그렇지 않죠. 그런데 벽돌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책상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왜냐면은 철수가 영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책상을 사 썼어요. 그럼 ‘철수가 영화를 좋아한다’가 무슨 얘기냐? 책상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이 문장이 신종플루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때, “‘철수가 영화를 좋아한다’가 신종 플루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는 게 담화 주제예요. 담화 주제는 ‘이 담화 속에 들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가령 ‘출지?’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문을 닫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어요. 찬바람이 쏘 들어와요. 그래서 ‘출지?’했는데, “아 춥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바보예요. “아 제가 문을 닫을게요.” 하고 문을 닫아야 돼요. ‘출지’가 ‘문을 닫아라’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출지?’라는 말의 discourse topic은 문장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는 영화를 좋아한다’에서 ‘철수는’이 ‘discourse topic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뭔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철수가 영화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모든 성분에 대해서 다 얘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철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영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좋아한다’에 대해서도 얘기한 거다. 이게 다 토픽이예요. 실제로 토픽에 대한 얘기, 주제에 대한 얘기를, 논문을 잘 들여다 보시면은 아무거나 다 주제예요. 아무거나 다 주제다. 이런 거 틀림없이 어떤 사람은 ‘문중에 있는 ‘은/는’은 대조 토픽이다’라고 했어요. 문중의 ‘은/는’은 이정민 선생도 대조 토픽이라고 그랬어요. 또 어떤 ‘은/는’은 문두에 있어도 대조 토픽이예요. 그리고 대조의 뜻이 없는 ‘은/는’이 이제 주제다 그런 거죠. 그럼 다 주제잖아요? 꼭 ‘은/는’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에 나타난 모든 요소가 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려면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은 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제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려면, 지금까지 너무 어떤 marker가 있는 것만 주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런 거죠. 그런데 문장에 나타난 모든 요소는 그 사람이 관심이 있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다.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 아주 미워하는 놈이기 때문에 철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면 자기 문장에서 그 사람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면 됩니다.

말한 범위 안에 있는 게 syntactic topic이예요. 그러니까 syntactic topic은 여하튼 ‘출지?’ 그러면 ‘출지’라는 문장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벗어나서 ‘아, 이것은 바로 사람이 다니는 문(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syntax가 할 만한 일이 못 됩니다. ‘인생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문장은 자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문장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거는 discourse가 다뤄라. 그러니까 문장 속에 있는, ‘철수가 영희를 선물을 주었다’ 이것만 가지고 다룬다 하면 그거는 syntax가 되죠.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을 주었다’ 이는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는 뜻이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syntax가 할 일이 아니죠. 이것은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는 뜻이다. 혹은 프러포즈를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다. 이런 거는 의미론 소관이

고 syntax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syntax하고 semantics의 가장 큰 차이는 syntax는 문장에 나타난 요소만을 다룬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한 한 나타난 요소들로 설명하려고 한다 그런 거고, semantics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밖에 있는 것까지 하려고 한다. 그 밖의 것은 syntax가 할 수 없는 거다. 그래도 참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의 문장의 범위를 넘어서나. 이것은 syntax가 해선 안 됩니다.

**대답자:** 네 그러면 문장에서 실현되는, 예를 들어 ‘은/는’ marker를 달고 나타나는 그런 주제 성분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문장에 나타났기 때문에 통사론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주제는 역시 통사론적 단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임흥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통사적 주제라고 얘기하자 그런 거죠.

**대답자:** 그럼 기존의 다른 어떤 통사론적 단위, unit라고 이야기했던 것들과는 어떤 면에서는 살짝 이질적인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요.

**임흥빈:** 그 이질적이라기보다는 그거를 그냥 포괄하는 거죠.

**대답자:** 그렇다면 기존의 unit의 외연이 확대된다는 차원에서 전개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임흥빈:** unit의 개념은 아니예요. 통사론적인 대상은 나타난 요소다.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은 요소를 통사론적인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답자:** 그렇다면 범주적으로 어떤 동사가 있고 그 동사가 ‘타동사이면은 주어와 목적어가 선행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통사적 통합관계라는 측면에서 통사론에서 분명히 언급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서 ‘은/는’ 성분이 나타나는 건 주제라고 하는 것이 통사론에서 문장 내에 실현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 이외에 아까 말한 동사가 갖고 있는 어떤 논항 구조의 실현으로서 문장이, 타동사문이 형성됐더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격과 어떻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지가…….

**임흥빈:** 그러니까 ‘어휘부의 논항이 뭘 가지고 정의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은/는’을 가지고 정의되는 항목은 거의 없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논항은 ‘은/는’을 가지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철수가’, ‘영

회를’ 이게 논항이고 그 다음에 주어하고 목적어다, 그리고 더 필요하지 않다 그런 거죠.

대답자: 그럼 ‘철수가 영화는 좋아한다’라고 하는 문장에서는 선생님 책에 나와 있듯이…….

임홍빈: ‘철수가 영화는 좋아한다’에서 ‘영화는’을 목적어라고 했던 말이에요.

대답자: 예.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선생님께서는 ‘그것은 목적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임홍빈: 왜 목적어가 아니냐 하면은 ‘철수가 영화는 동생을 좋아한다’는 문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답자: 그렇죠.

임홍빈: ‘철수가 영화는 좋아한다’ 이렇게 됐을 때 ‘영화는’을 목적어라고 그런다면 ‘철수가 영화는 동생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경우, ‘영화는’도 목적어고 ‘동생’도 목적어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는’은 왜 목적어라고 할 수 없느냐. 쉽게 얘기하면 ‘좋아하다’의 논항구조를 ‘무엇이 무엇을 좋아하’ 이렇게 정의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구조화했기 때문에 ‘철수가’가 주어고 ‘동생’이 목적어인데 ‘영화는’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화는’을 분석할 수 있는 요소는 영어 문법에 없다. 서양 문법에서 2000년 동안 발달시켜 온 문법론에는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술어가 없다. 그런데 주제라고 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문장의 모든 요소는 다 주제니까. 문장의 모든 요소는 다 주체대 ‘철수가’는 뭐냐? 주어이면서 주제다. 여기 ‘동생’은 뭐냐? 목적어이면서 주제다. 주제는 필요도 없는 거다. 모든 성분이 다 이러니까. 모든 성분이 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럴 때 여기서는 주어가 중요하고 주제는 뭐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또 목적어가 있고 주제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다. 그런데 ‘영화는’은 syntactic function이 없다. ‘영화는’은 syntactic function이 없는데 주제라고 하는 것을 syntactic function으로 설정하면 한국어 문법에서 가장 초보적인 문장이 분석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학생이다’가 분석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학생이다’를 지금 가지고 있는 문법으로서는 분석할 수 없다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학생이다’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은/는’을 가진 게 주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잖아요. 그런데 ‘은/는’을 가진 거는 주어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는 동생이 학생이다’라는 문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동생이’가 주어지 ‘나는’이 주어가 아닙니다.

**대답자:** 그런데 선생님 모든 문장이 ‘나는 무엇이다’라는 문장에서 그 동생이나 무슨 아버지나 뭐 이런 다른 주어 성분들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나는 학생이다’가 그게 ‘나’가 주어의 어떤 후보에서 빠질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게 굉장히 질문이 좀 이상한데…….

**임흥빈:** 그러니까 ‘나는 학생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질문이 ‘나는 동생이 학생이다’ 뭐 이렇게 ‘나는’과 ‘동생’이 전부 다 주어이기 때문에 ‘나는’이 주어가 안 된다고 하는 게 가능하냐?

**대답자:** 그럼 ‘나는’,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나는 학생이다’에서 ‘나는’이 주어가 되기 위해선 ‘나는 내가 학생이다’…….

**임흥빈:** 네, ‘나는 학생이다’에서는 주어 자리가 지금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본인이 학생이다’라고 해 보세요. ‘본인이’가 주어잖아요? 그런데 아까 양정석 선생이랑 목정수 선생은 ‘나는 학생이다’의 ‘나는’의 ‘는’ 앞에 제로가 있다고 봤던 거죠. 그런데 주제와 주어가 이렇게 나누어서 등장할 수 있으니까, 이 자리를 비록 추상적인 것이지만, 주어에 상응되는 자리로 비워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석된 범주로 주어 자리에 e를 상정한다는 것입니다. 주어를 empty를 상정하는 데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답자:** ‘철수는 영화는 좋아한다’라는 문장에서 ‘영화는’과 ‘좋아한다’ 사이에서 목적어 자리를 해석해서 공범주로 두신 건데,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공부를 해 오시고 논문을 발표하신 것을 보면 분석의 문제와 해석의 문제를 철저하게 구분하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영화는’을 어쨌거나 한국어 화자들은 목적어처럼 의미론적으로 인식을 하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께서는 재구조화라는 개념을 만드셨고 그것을 통해서 설명하신 것까지는 참 좋은데, 거기서 구조를 분석하는 문제와 해석의 문제가 좀 애매해졌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영화는’을 목적어처럼 인

식을 하려면 일단 목적어 자리를 상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이때 상정하는 것은 공범주를 상정하는 것이고, 구조에 의해서 상정되는 것이니까, 이게 해석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범주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경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서도 이게 참 애매했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임흥빈:** 공범주를 설정하는 것은 해석에 의한 것입니다. ‘좋아하-’가 동사이고 동사-바의 보어가 비어 있는 것입니다. 동사-바가 비어 있는데, 어휘부에는 목적격 조사구 혹은 대격 조사구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대답자:** 논항구조예요?

**임흥빈:** 목적격 자리에 조사가 있고, 아, ‘이게 안 나타났다’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영희는’은 adjunction structure에 나타나죠. 그 다음에, 주어가 나타나면 끝이니까 VP가 됩니다. 투사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에서 주어가 없으니까 주체가 주어처럼 인식되는 것입니다. 누가 인식하느냐? 평범한 한국인이.

**대답자:** 그런데 그 인식과정이라는 것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자리에서 AKP의 자리가 상정되어야만…….

**임흥빈:** AKP 자리는 이렇게 상정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대답자:** 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있다고 상정이 되어야만 해석이 되는데, 이제 표면구조를 중시해서 통사적인 분석에 충실하려면, 사실상 나타나지 않은 것이니까 해석에 의해서만 상정할 수 있는 자리인 것이죠.

**임흥빈:** 아니, ‘좋아하다’가 NKP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답자:** 어휘부에 가지고 있다……?

**임흥빈:** 가지고 있으니까 달고 올라갈 수는 있는데, 여기다가 e를 상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대답자:** 상정하지 않으면…….

**임흥빈:** 이 e를 상정하지 않으면……. 상정하면, 여기에 나타나야 할 놈이 안 나타났구나.

**대답자:** 네, 그렇게 되죠. e 자리를 상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

요?

**임흥빈:** e 자리를 상정하지 않으면은 AKP를 가지고 그냥 가는 거죠. 고민할 것도 없고.

**대답자:** 그래도 AKP는 나타나야 하는 거네요.

**임흥빈:** 자리는 있는 거죠.

**대답자:** 자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e를 상정하지 않아도 ‘영회는’을 ‘영회를’처럼 재구조화하는 것은 ‘영회는’이라는 HP를 AKP처럼 인식한다는 말씀이세요?

**임흥빈:**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회는’이 목적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이 구조가 평범한 한국어 화자의 머릿속에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 속에서 평범한 한국인이 이것을 목적어로 인식한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증거예요.

**대답자:** 그러니까, 통사론을 전공한 사람들은 ‘영회는’을 HP로 분석을 하는데 일반적인 한국어 화자들은 그 자리를 AKP로 분석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임흥빈:**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AKP가 아닌 거죠.

**대답자:** 그 괴리를 메우는 것이 재구조화 개념이지 않습니까.

**임흥빈:** 재구조화는 지금 목적어다 그런 쪽이죠. 이것을 떼어서 여기다 갖다 붙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재구조화는 직관적인 구조예요. 정밀한 구조가 아니예요.

**대답자:** 어쨌거나 그런 문장을 설명하실 때 선생님께서 재구조화라는 개념을 쓰시니까, 재구조화라는 개념은 분석된 통사구조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논항구조에서 일어난 것으로…….

**임흥빈:** 논항구조는 사전에 있잖아요.

**대답자:** 문장에서 실현되지 않았으니까 논항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회는’ 같은 경우에는…….

**임흥빈:** 그렇죠.

**대답자:** 그러니까 어휘부에 주어저 있던 논항구조 속에서 뭔가가 채워져야 할 것이 있는 것이고, AKP 자리가, 이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영회는’

이라는 HP 자리를 그 논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논향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임흥빈:** 그렇죠. 내가 해석한다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이것을 목적으로 인식한다. 그것을 이 구조에 반영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목적어예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구조를 여기다 갖다 넣으려고 하면 복잡해져요. ‘는’을 반영할 수가 없죠.

**대답자:** 논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생성문법에서 v를 놓고 여기서 뭔가 해석을 받기 위해서 이동해 온 것처럼, 생성돼서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해석이 비슷한 과정으로 일어난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었는데……. 구조를 아무래도 보여 주고 논의를 하시니까. 이게 구조와 해석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임흥빈:** 이것은 해석과 구조의 문제입니다.

**대답자:** 재구조화는요?

**임흥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구조에 대한 인식입니다.

**대답자:** 재구조화는 해석의 문제도 아니고…….

**임흥빈:** Semantics는 어디까지나 영희의 의미, 그 다음에 ‘는’의 의미가 작용을 하는 거죠. 일단, ‘영희는’이라고 하는 Semantics가 있고, 그게 목적어나, 그렇게는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 목적어로 인식하는 것이 재구조화다. 그게 목적어나? 아니죠.

**대답자:** 그럼, 구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네요.

**임흥빈:** 재구조화는 구조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대답자:** 통사론에서 표층이 실현된 것을 중시한다고 하셨는데요. ‘영희는’은 실현된 요소이지 않습니까?

**임흥빈:** 그렇죠.

**대답자:** 그럼, 통사론에서는 ‘영희는’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주제? 부가어? 보조사구?

**임흥빈:** 보조사구죠. 보조사구이고 그 위치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답자:** 보조사구이고 위치가 어디나까지만 얘기를 하는……. 통사적 주제이고, 목적어도 아니고…….

임흥빈: Syntactic topic이고.

대답자: 토픽인 것까지도 통사론에서 하는 건가요?

임흥빈: 그래야지만 이게 통사적 요소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 괴상한 놈이 생긴 거죠. 분석할 수 없는 놈이 생긴 거예요.

대답자: 어떻게 보면, 부가어에서 존재 전체나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부사어 같은 것과는 상당히 맥이 닿아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임흥빈: 이 구조는 부가어 구조죠.

대답자: 그러면, 재구조화라는 개념을 선생님께서 쓰신 것은, 통사론을 전공하는, 통사론자들이 분석해 낸 구조와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구조가 있을 텐데, 이 구조 사이가 어쨌거나 괴리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아니었던 것이네요.

임흥빈: 아, ‘극복’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설명하기 위한 거죠.

대답자: 이 괴리를 설명하기 위한 거요?

임흥빈: ‘괴리’보다도, 여하튼 일반인들이 이것을 ‘철수가 영희는 동생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에서도 계속 목적어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이게 목적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목적어가 이미 나타나면 이것은 목적어라고 주장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이게 온전히 ‘는’을 가지고 있는 보조사구인데 syntactic topic으로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학생이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장이 분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도.

대답자: 선생님 그러면, 어근 분리를 하실 때에도 어근분리된 대상을 앞에 주제로 설정을 하시고 그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단어로 설정을 하시는데, 그럴 때 그 구조를 생각을 하신 것은 또 저거랑은 차이가 있는 것인데. 혹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가 있는가요?

임흥빈: 질문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대답자: 예문이, ‘따끈따끈을 하다’? ‘따끈따끈’을 앞에다 놓고 공범주를 설정해 놓고, 그 전체를 다 단어로 해서 어휘고도제약을 어기지 않게 되는 구조로 설정을 하셨는데, 그것하고 저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같이 보

이고……. 그 전체가 하나의 단어로 구성되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덩어리가 크게 보이거든요.

**임흥빈:** 덩어리가 크게 보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구조 바깥으로 나가게 한다 그러면은 다시 어휘고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고도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은 단어 속에서 일어난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단어 속에서 ‘을/를’이 쓰였다고 하는 것은 자유롭지 않다 그거예요. 단어 바깥에 있는 ‘을/를’이라면은, 뭐 ‘씩씩을 하다’라고 하면은 ‘씩씩을 그 여자가 하다’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하다 씹씩을’ 이렇게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성분들은 마음대로예요. 어근이 아니고 다른 성분들은, 뭐 ‘철수는 내가 좋아하다’든지, ‘내가 좋아한다 철수는’ 뭐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근거는 그런 근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씩씩하다’ 속으로 ‘를’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syntactic 요소가 단어 속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단어 속을 간섭해요. 그 lexical identity를 어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죠. ‘씩씩하기는’ 그런 거는 괜찮죠. ‘씩씩하기는 철수가 하다’ 그것도 조금 그런가? ‘철수가 하다 씹씩하기는’ 그것도 좀 자연스럽지는 않죠. 그런데, 그거는 아주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가정을 해 본 것이고,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얽매이는 것은 lexical identity를 너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런 것입니다.

**대답자:** 씹씩은…….

**임흥빈:** 씹씩은 그 여자가 하다.

**대답자:** ‘씩씩하다’ 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그 ‘하다’ 어근 분리된 다음에 뭐 접사에 통합체로 보고 있는 그 ‘하다’ 자체를 오히려 뭐 씹씩하다고 생각을…….

**임흥빈:** 다시 씹씩하다?

**대답자:** 선생님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오히려 그 통사적 제약이라고 하는 것도, 어휘고도제약이나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임흥빈:** 어쨌든 뭐,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증거 찾기가 어려운 현상

들이 있어요.

**\*자료**

**대답자:** 선생님의 이전 시기 연구에서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적인 자료뿐 아니라 문법성, 수용성 판단에서 이견이 예상되는 특이한 자료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언어 형식의 본질이 전형적 예가 아닌 주변적 쓰임에서 찾아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듯하다고 짐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자료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임흥빈:** 특이한 예문에 대해서 반감이 많은가 봅니다.

**대답자:** 어디서 찾으시는지 다들 궁금해 하는데요.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 왔거든요. 지금 ‘씩씩은 하다’와 같은 예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통은 금방 얘기를 해서 떠오르는 예문들도 아니고 ‘들’ 같은 것을 얘기하면서도 ‘너희는 머리가 없다.’라든지 ‘너희들은 머리가 없다.’라든지 그런 예문들을 비교해서 만드시는 것을 보면 그런 예문들을 그냥 혼자서 생각을 해서 하시는지 어떤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게 있으신지, 책이라든지 아니면 드라마든지?

**임흥빈:** 제가 잘 못했던 거는 예문들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별로 잘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데이터를 컴퓨터에서 찾는 시대에 공부할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만들어 냈는데.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것을 작례(作例)라고 해서 멸시하는 사람도 있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특히 멸시하는 사람 중에 아주 두드러진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예요. 머릿속에서 예문 만드는 것을 정말 뭐랄까 멸시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모든 예문을 다 찾아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스타(\*) 치는 예문이에요. 스타 치는 예문은 자기들이 찾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 예문에 스타 표시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검색은 주어진 것,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모든 일본어를 다 찾았다, 혹은 모든 한국어를 다 찾았다, 그 결과 이 예문은 스타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멸시하는 태도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죠. 영터리

예문을 만들어서 논문을 쓸 때에는 아이구, 이 사람 뭐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객관적인 예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 찾아질 리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을 컴퓨터 검색을 하면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건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예문은 안 찾아집니다.

예전에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사전편찬 국제학술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사전 편찬자들과 일본의 사전 편찬 전문가들이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때 연구원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예문은 길어지기만 하지, 필요한 예문은 나오지 않지, 예문의 양은 엄청나게 많지. 거기서 쓸 수 있는 예문은 다섯 개밖에 없는데 찾아야 될 분량은 이렇게 되지요. 그때 중국 사람이 하는 말이 중국 사람이 ‘아 그거 그냥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요. 그거를 전부 다 찾아서 사전을 전부 그렇게 다 만든다고 하면 몇 천 년이 지나도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방법은 너무나 비경제적인 것입니다. 자명한 용법을 가지고 코퍼스를 계속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선 자기들이 문법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스타 표시된 예문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실지로 존재하는 예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비문법적인 것도 나올지 모릅니다. 잘못된 예문이라도 코퍼스에서 나올지도 모르지만, 스타 표시된 예문을 코퍼스에서 어떻게 찾느냐 이 말입니다. 못 찾죠. 원리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예문을 잘 찾을 수 없다.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문형을 사용해서 말을 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이 되는데 이것은 앙케트 조사로 보충할 수는 있지만 전부 다 완전한 코퍼스, 완전히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논문을 쓰는 거는 실지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건 내가 작례로 한 것이다.’ 특히 어떤 분은 여기에 있는 예문들은 다 만든 예문이다, 그리고 부끄러워하더라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한국어인데 무슨 소리냐. 뭐 때문에 부끄러워하느냐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의 직관이라면 논항이 뭐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 알고 있는 판에 부끄러울 게 뭐 있어요. 자기가 충실하게 했느냐 이런 것이 문제지, 뭐가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코퍼스가 없는 시



대에 산 사람입니다. 최근에는 코퍼스가 만들어졌습시다만, 코퍼스가 없을 때에도 직관에 의존하여 최선을 다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답자:** 예문 같은 것이 전에 말씀하신 듯이 저녁에 잘 때 갑자기 문득 떠오르시는지요? ‘너희는 머리가 없다, 너희들은 머리가 없다’나 ‘깨끗을 하다’와 같은 예문 같은 것이 갑자기 떠오르면 그것을 메모를 해 났다가 쓰시는 건지요?

**임흥빈:** 아니, 나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논문을 써 났는데, ‘단단을 하다’ 그랬더니 이병근 선생님께서는 ‘단단을 해?’ 하고 이 예를 문법적인 것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단단을 하다’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은 잘 쓰지 않으시는 모양입니다. ‘평평을 해’는 아주 괜찮은데, ‘평평을 해’는 좀 써 보신 것 같아요. ‘단단을 해’와 같은 예를 문법적인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두 번째 얘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얘기해서는 뭐. ‘이 땅은 참 평평하죠.’와 같이 ‘을/를’ 없이 이야기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땅은 참 평평하죠.’라고 누군가 말하였을 때, ‘뭐 평평을 해?’ 이렇게 두 번째 얘기를 해야지 잘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 땅은 평평을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첫 번째 제시하는 말로 ‘평평을 하죠.’ 그렇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 이 책상은 참 반듯한데.’ 하면, ‘반듯을 해?’ 비꼬아 말할 때 잘 성립합니다. ‘이게 뭐 반듯을 해.’ 그래야지 잘 성립하죠. 그런데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쓰던 말입니다. 논리적으로는 그 자리에 보조사가 나타날 자리예요. ‘단단은 하다, 단단이야 하다, 단단도 하다, 단단만 하다, 단단조차 하다’ 그계 보조사가 줄줄이 다 쓰일 수 있는 자리이고, ‘을/를’이 보조사적인 용법을 가진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를’이 쓰인 거고, 그렇게 해서 ‘를’을 써 났더니 성립하였습니다, 제 논문 중에는 ‘오늘은 그 회사가 소풍이 우리가 사업이 낭패다.’ 이런 예문이 있는데 영남대학인가요, 임철성이라는 분이 다른 사람들의 논문에 나타난 괴상한 예문, 이것을 다 이렇게 적어 가지고 자기 학생들한테 나눠 주고 점수를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상한 논문의 문법성 문제를 제기한 논문이 있어요. 예문예다 오엑스(○×)를 해서 제출하게 하여 논문을 쓴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 예문들이 예상대로 대체로 점수가 나뻐했습니다. 나쁘네 빵점

자리는 없다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대답자:** 다른 예문들은 빵점 자리가 있었나요?

**임흥빈:** 다른 예문도 빵점짜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학생들의 한국어 직관은 굉장히 서구화, 영어화된 것이거든요. 특히 대학생들한테 앙케트 조사시키면 ‘철수를 선물을 주었다’를 주고 이것이 성립하는가 하고 물으면 당연히 빵점입니다. 1학년 학생들은 빵점이에요. 철수를 선물을 주어요?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한국어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철수에게 선물을 주었다’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영어 번역으로 ‘철수에게 선물을 주었다’만 배웠지, ‘철수를 선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는 배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광호 선생님이 중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다 오셨는데 거기서는 ‘철수를 선물을 주었다’ 그러면 잘못된 것으로 엑스 표시를 합니다. 참 문제죠?

그런데 전형적인 자료, 가령 ‘철수에게 선물을 주었다’ 이것만 가지고 작업을 하고, 논문을 쓴다고 하면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뭔가 다른 것을 성취하려면 자료가 더 많이 있어야 합니다. 자료가 이만한 부분이 더 있어야지요. 비전형적인 자료가 더 들어가야지 이제까지의 논의하고 다른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와 똑같이 수여동사는 ‘에게’, ‘를’을 필요로 한다, 그럼 끝이죠 뭐. 그런데 ‘를’도 나타나다, 이게 도대체 뭐냐? 라고 해야 다시 애깃거리가 되고 또 진지한 얘기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뭐 ‘~에게 ~를 주다’가 전형적인 4형식 문장 같죠, 수여동사 구문의 논항구조 같은데, 논항구조에 순서도 포함되어 있어요. 논항구조에 순서도 포함되는데, ‘그거 이리 줘’는 자연스럽죠, ‘이리 그거 줘’가 더 부자연스러워요. ‘이리 그거 줘’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문장처럼 느껴집니다. ‘이리 그거 줘’는 이상합니다. ‘그거 이리 줘’가 자연스럽죠. 그렇다면 이제 ‘주다’의 논항 순서가 ‘~에게 ~를’이 아니라 ‘~를 ~에게’ 순서가 자연스러운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또 제기되거든요. 이때에는 ‘그거 이리 줘’가 지금 특별한 상황에서 쓰인다는 것을 살피셔야 합니다. ‘그거 이리 줘’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문제의

대상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방향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방향이 중요시 되면 ‘이리 그걸 보내’ 하게 되죠. ‘이리 저걸 줘’, ‘저걸 이리 줘’도 괜찮지만 ‘이리 저걸 줘’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이리’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지난 학기에 이 문제를 수업을 하었을 때 학생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에게 ~를’이 어휘부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이었습니다. 그건 당신 머리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것은 코퍼스를 조사해 보면 금방 나타난다. ‘~에게 ~를’하고 ‘~를 ~에게’를 비교 조사해 보면 ‘~에게 ~를’이 훨씬 많이 나타납니다. 왜 많으냐? ‘~에게 ~를’이 기본적인 어순이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복잡합니다만, ‘무엇을 무엇에게’하고 ‘무엇에게 무엇을’을 단순 비교해 봐도 이게(‘~에게 ~를’) 훨씬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특이한 자료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논문을 쓰지요. 특이한 것이 이렇게 눈에 띄이면 그것도 그냥 우습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잡히면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지요. 마지막까지요. 어떤 것은 상대방하고 의가 상할 정도로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말해 버리면 문제가 소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슨 그따위 것을 생각하고 있어? 그럼 나는 그런가? 하고서 문제를 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끝까지 이것은 내가 결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뭐가 형성되기 전까진 문제와 해결 방법을 입 밖에 내어선 안 됩니다.

### \*계통론

**대답자:** 계통론은 어떻게 공부하게 되신 것입니까?

**임흥빈:** 사실은 계통론을 하러 국문과에 들어왔어요. 이종철 선생님께서 계통론을 하라고 권하셨죠. 그때 이기문 선생님이 계통론으로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었고 사람들도 옆에 많이 있었죠.

**대답자:** 그러면 계통론을 연구하시려다가 통사론으로 전향하신 것입니까?

**임흥빈:** 아뇨. 계통론은 대학교 1학년 때만 정신없이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책이 없어서 절망을 하였어요. 그 당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과외하면 2천 원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거의 쫓겨났죠. 전화도 없는 시

절에 못 간다고 연락할 수도 없고, 그리고 대학생이 어떻게 매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허허. 2천 원이 그만큼 큰돈이었죠. 그런 현실에서 명동에 ‘소피아 서점’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람스테트(G. J. Ramstedt) 등의 논문이 실린 *Einführung in die Altaische Sprachwissenschaft, Mémoires de la Société Finno-Ougrienne* 등의 잡지가 한 권에 2만 원을 했어요. 그런 책은 외국에서 만들어져서 실로 제본이 되어 있었고 책장 사이를 칼로 찢어야 하는 책이었죠. 너무 비싸서 아무도 못 사는 책이 시리즈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리즈를 다 산 사람이 있었는데, 성백인 선생님이에요. 거기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신 거예요. 허허. 그 당시 그 책들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언어로 되어 있어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라비아어, 터키어, 몽고어 등이었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언어들을 연구할 사전도 없었어요. 몽고어 사전과 만주어 사전은 군에서 제대한 뒤에서야 겨우 얻을 수 있었고 나머지는 구하기가 어려웠죠. 이기문 선생의 『국어사개설』에 나오는 솔롱어(Solon), 에벤키어(Evenki), 오로키어(Oraoki), 오로치어(Orochi) 등의 사전이 지금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서울대 도서관에 없어요. 언어학과에 부분적으로 사전이 있습니다. 비교언어학은 굉장히 절망적이었다고 할 수 있죠. 포페(N. Poppe)의 *Introduction to Altaic Linguistics*란 책을 공부할 수도 있고 번역할 수도 있었겠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연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교언어학 연구를 하겠다고 하면 간혹 현지 조사를 권하기도 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하지 않던 계통론에 왜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현재 알타어 어족에 대한 연구 동향과 관련됩니다. 백위드(C. I. Beckwith) 교수가 *Koguryo: The Language of Japan's Continental Relatives*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번역한 분이 정광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한번은 한국어연구소 이상익 소장님의 초청으로 서울대에 와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구려어와 일본어가 공통어이고 나머지 언어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삼국사기』의 고구려어 지명을 상당히 해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상하게도 탁월한 알타이어 학자라는 분들이 반알타어 어족 가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이대학 보빈(A. Vovin) 교수가 반알타

이어 입장으로 알타이 공통어는 없다고 하죠. 한편 핀란드의 얀후넨(J. Janhunen) 교수도 알타이 어족 가설에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알타이 어족은 없고 알타이어 현상만 있다고 합니다. 얀후넨 교수도 송기중 선생의 초청으로 서울대에 와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만주어와 몽고어, 한국어와 일본어가 비슷한 지역에 있으면서 두 언어가 비슷해진 것으로 보는 것인데, 언어 분화설이 아니라 언어 합류설로 보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합류설로 보는 관점은 그나마 알타이어에 가장 호의적인 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지금 반알타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미추홀’이 눈에 띄는 것입니다. ‘미추홀’이 인천(仁川)이잖아요. ‘미추홀’이 땅에 물기가 있고 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추’라고 하는 말이 ‘미즈’라는 일본어와 같은 것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미추홀’인데 ‘홀’은 고을이라는 말이고 일본어로 ‘물’이 ‘미즈’예요. ‘미추홀’에 ‘미추’와 일본어의 ‘미즈’는 같은 말이에요. ‘미추’는 신라에도 왕 이름에 ‘미추왕’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미추’라는 말은 두 군데에 쓰인 것이 됩니다. 하나는 왕도의 이름에 쓰였고 다른 하나는 왕의 이름에 쓰인 것입니다. 일본 동경외대의 이토(伊藤藤人) 선생한테도 이런 얘길 했습니다. 이토 선생도 일본어의 알타이어족 가설을 다 버린 사람입니다. 관련이 있을 거라고만 말하고 있지만, 믿지는 않는 눈치였습니다.

김진우 선생께서 한국어를 소개하는 글에 한국어하고 일본어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단어가 2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친족 관계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보신 것이 있습니다. 한국어하고 일본어하고 계통이 같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0개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건 줄 아십니까? 정말로 계통을 같이하는 말이 하나만 있다고 해도 그 두 언어는 계통을 같이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비교 가능한 말 하나 둘, 혹은 대여섯 개 가지고 계통이 같으나 다르냐 하고 앉아 있는 거지, 이백 개 가지고 계통이 같으나, 다르냐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을 본래적으로 일본이 사용했고 또 그것을 본래적으로 한국이 사용했다고 하면 이 두 언어는 계통이 같은 언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극단적으

로 말하면 다른 거 다 다르고 ‘물’이라고 하는 것 하나만 본래적으로 일본이 사용했고 또 그것을 본래적으로 한국어가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두 언어는 계통이 같은 언어입니다. 기요시 시미즈(한국이름 朴清水)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어하고 한국어와 비교될 수 있는 단어를 오천 개나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A. Vovin이 한국에 왔을 때, 제가 계속해서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비교 가능한 어휘들을 이야기하였더니, 일본어하고 한국어하고 비교될 수 있는 거 다섯 개만 가지고 와 보라 그러더군요. 그래서 다섯 개를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는 ‘바회’예요. ‘바위’가 일본어로 ‘iwa’잖아요. ‘iwa’를 발음하면서 ‘pawi’하고 비교해 보세요. 또 일본 후쿠오카에 한자로 ‘博多港’이 있거든요. 일본말로 뭐라고 하죠?

대답자: 하카타.

임흥빈: 그래요. 하카타가 통구스어로 ‘바그타’입니다. 그것이 ‘바위’예요. ‘하크’하고 ‘바크’가 같아요. 한국어로는 ‘바위’잖아요. 한국어의 계통을 다루는 사람들이 너무 지금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알타이어가 하나의 어족을 이룬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하는데 학문적으로 깊이 가면 갈수록 우연을 배제하고 필연을 찾는 거 아니에요? 한국어하고 통구스하고 친족 관계를 같이한다는 필연적인 이유를 대라,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뭘 수 없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한국어의 ‘물’이 통구스어로 ‘무케’고 터키어로 ‘수’입니다. 고구려어로는 물이 ‘買忽忽’로도 적히고 ‘買忽’로도 적힙니다. ‘邵城縣’도 있습니다. 이를 종래에는 ‘勿’ 계통하고 상당히 다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고구려어의 ‘買’는 ‘마이’로 읽었습니다. ‘마이’라고 읽으면 ‘물’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런데 물을 적은 거라 하면은 ‘무’와 ‘물’이잖아요. ‘무’가 중세어만 하더라도 ‘므’였어요, ‘우’가 아니라. ‘물’하고 ‘무’하고가 공존한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어도 ‘물’이 있고 ‘무’가 있어요. ‘무자위’ 뭐 이런 거 다 ‘물’이에요. 그리고 ‘미나리’ 계통의 ‘미’도 있고 또 ‘미역’의 ‘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는 한자라고 해도 아마 그것은 ‘물’을 적은 것이다. 그리고 이 언어들이 서로 ‘물’을 빌려왔다 이렇게 볼 순 없잖아요. 너무 기초적인 어휘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일본어가 한국어에서 빌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없

는 건데. 그렇다면 알타이 어족 가설은 성립 가능한 게 아닙니까? 더군다나 포페의 가설이 한국어가 알타이어족에서 제일 먼저 떨어져 나왔다는 얘긴데 그것보다도 ‘물’을 중심으로 보면 ‘M’을 가지고 있는 언어가 있고 ‘S’를 가지고 있는 언어가 있어요. 터키하고 몽고어가 S를 가지고 있어요. 종래에는 몽고어가 한국어하고 매우 가깝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몽고어하고 한국어는 가까운 언어가 아닙니다. 통구스어하고 한국어가 가깝지 몽고어는 가까운 언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M’을 찾았어요. 몽고어에서도 M을 찾았는데, 그래서 몽고어의 ‘mören’을 ‘물’과 비교하였습니다. 그런데 ‘mören’은 강을 뜻합니다. 그러나 몽고어는 ‘S’ 계통이에요. 몽고어에서 ‘물’은 usu인데, ‘su’가 중첩되어 ‘susu’가 되고, 어두의 ‘s’가 떨어져 ‘usu’가 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Starostin 참조). S 계통의 언어가 터키어, 몽고어고, M 계통의 언어가 한국어, 통구스 어, 일본어 등입니다. ‘물’을 중심으로 알타이어를 둘로 가르면 터키, 몽고하고 통구스, 한국어, 일본어 이렇게 갈립니다. 둘로 나뉘잖아요. 그런데 그걸 포페는 한국어가 제일 먼저 떨어져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밀고 나가면 한 발자국도 밖으로 못 나가는 거죠. 왜냐면 사전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한계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좀 찾을 수 있어요. 지금은 *Etymological Dictionary of the Altaic Languages*라고 스타로스틴하고 나머지 두 사람이 편집한 세 권짜리 굉장히 두꺼운 사전이 있는데 그걸 도서관에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서울대 도서관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이 한자에 관한 상고음, 중고음 이런 것을 재구해 놓은 것은 중문과에 조금 있어요. 칼그렌하고 동동화가 편한 사전,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재구한 중국음 등의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답자:** 언어유형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흥빈:** 저는 유형론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많은 언어를 알면 좋지요. 많은 언어를 모르면서 유형론을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어에 대해서 관계 구성에 대해서 잘 해결도 안 되었는데 관계 구성을 유형론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감한

것같이 생각되거든요. 한국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 유형론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통사적인 구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거의 다 이루어진 상태나 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런 다음에 그것들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의 언어들을 가지고 언어 유형적 접근을 시도한 것이 하스펠마스예요. 하스펠마스의 굉장한 업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순에 관해서 독일어가 어디에 속해 있냐고 하면, 이게 참 문제입니다. 독일어가 무슨 어순이죠? ‘주어-목적어-동사’ 어순이에요? ‘주어-동사-목적어’ 어순이에요? SOV예요, SVO예요?

**대답자:** 전형적인 경우에는 SVO 같긴 한데요. 원래는 SOV에서 11세기인가 점점 더 유럽인들이 독일어라든가, 핀란드어가 SVO로 바뀌었다 그러죠.

**임흥빈:** 주절에서 SVO고 종속절이 SOV예요. 이걸 유형적으로 어디에 소속시킬 것입니까? 어디에 소속시키죠?

**대답자:** 그걸 유형을 하나 더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주절과 종속절이 다른 언어 유형을 하나 더 만들면.

**임흥빈:** 그게 독일어는 SOV도 아니고 SVO도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대답자:** 절대적인 유형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발굴해 가면서 유형을 조절해 갈 수 있지 않나요.

**임흥빈:** 독일어의 어순 유형도 제대로 연구가 안 된 거지요. 놀랐을 때 갑자기 하는 말 독일 사람들은 SOV래요, 종속절이 SOV인데 종속절의 어순이 고대형을 반영한다는 것이거든요. 주절은 쉽게 바뀔 수 있으니까 주절은 기본 어순에서 제외하고 종속절은 옛날 것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영어도 고대영어는 SOV였다고 합니다. 언어 유형론을 하면 더 많은 언어 자료에 접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지요. 그런데 많은 언어가 있다는 것에 의해서 예외적인 현상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언어 유형론적으로 봐서 그런 언어 유형이 있고 또 이런 언어 유형이 있다고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상하게 더 연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언어 유형론의 큰 단점이에요. 언어 유형론에 입각하면 다른 언어를 더 찾아 봐야지 하는 욕망을 일으킬지 모르지만, 이런 언어도 있고 저



런 언어도 있는데 뭐 그걸 가지고 어순이 앞에 오면 어땡고 뒤에 오면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한국어의 자유어순과 같은 것은 가령 일본어도 그러니까 특별히 연구할 대상이라는 생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언어 유형론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면 이런 소박한 생각은 없어지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한국어를 봐도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은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선불리 유형화해서 다른 언어와 같은 자리에 놓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위험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답자:** 마무리로 후속 학문 세대에게 해 주실 조언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흥빈:** 학문적인 환경이라고 할까요. 학문적인 환경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아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주변에서 하는 말이 5년만 한 분야를 파면 한국에서는 그 위에 사람이 없다 그랬거든요. 5년만 한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그 이상 가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때에 하는 말은 독일에서는 50년을 한 분야에서 공부해도 선배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국도 차츰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50년을 한 분야에서 열심히 해도 자기 선배가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점에서는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대다 그런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는 자료도 없고 책도 못 구해서 정말로 안타까운 시대를 겪었는데 지금은 그 시대가 언제였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자료의 풍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특정 문제를 다루고자 하면 여전히 자료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만, 지금은 웬만한 잡지를 다 구해 볼 수 있는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학문적인 열정도 그에 못지않게 키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발표도 많이 하고 학회에도 열심히 쫓아다녀야 되는데, 최근 학회에는 쫓아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혼자만 공부하겠다’ 그런 생각인지 몰라도 대학원생들이 학회에 안 쫓아다닌다면 이걸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학문적인 열정도 함께 키워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자:** 장시간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